

남해안 연해읍성의 雉城 小考

: 河東邑城의 치성을 중심으로

李 日 甲*

〈목 차〉

- I. 머리말
- II. 치성의 명칭과 축조양상
- III. 하동읍성 치성의 현황과 특징
- IV. 연해읍성 치성의 비교
- V. 영진보성 치성과의 비교
- VI. 맺음말

국문요약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은 읍성에 축조된 대표적인 방어시설로서 甕城門址, 垓字, 女牆과 더불어 조선시대 읍성 부대시설에서 세트로 축조되고 있어 남해안 연해읍성의 방어시설의 구조와 축조수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상도의 경우 경주, 김해, 창원 등의 대도호부와 병영이 설치된 상위 행정단위 및 군대의 상급지휘체계의 지휘관이 위치하는 곳에 축조된 읍성이 하위 행정단위의 읍성에 비해 치성수가 1.5배 내지 2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행정단위가 상위 일수록 치성이 증가하며 또한 병영 및 수영이 설치된 내상성일수록 치성의 숫자가 일반군현에 축조된 읍성 치성에 비해 많은 숫자로 계획되어 축조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읍성에 설치되는 치성의 기본적인 수치는 읍성의 4성우와 주요 문지의 좌우 적대를 갖춘 6개소의 형태와 4성우와 각 문지 좌우에 각각 2개소가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예연구원.

설치된 12개소의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남해안지역의 연해읍성에 12개소 이상의 많은 치성이 설치되는 것은 왜구의 침구로부터 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조선 전기의 하삼도에 집중된 읍성 축성사업이 특히 경상도 연해 즉 남해안 연해읍성의 축조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남해안지역 연해읍성과 내륙읍성 및 영진보성 치성 가운데 정방형 평면플랜을 가진 치성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축조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대형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장방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종 15년(1433)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정방형이 훨씬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읍성은 공통적으로 병영과 읍치가 공존하는 내상성이거나 행정구역 단위 가운데 상급단위의 고을에 설치된 읍성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5세기이후 16세기를 거치면서 치성의 평면플랜은 정방형과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방대형의 형태는 쇠퇴하거나 소멸되고 있다. 또한 15세기 전후에 축조되는 수군 영진보성의 경우에도 정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방형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세종 15년(1433) 치성 축조 규칙의 적용 이후에는 방대형의 치성이 축조되고 있지만 정방형과 장방형의 치성도 계속해서 축조되고 있다. 더구나 장방형 치성의 경우에는 방대형보다 오래기간 지속적으로 축조되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방대형의 축조를 규칙화한 축성방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을 비롯한 영남 내륙읍성의 치성에서 정방형, 장방형, 방대형의 치성이 혼용되는 이유는 치성 간에 길이의 차이를 두어 상호보완토록 하고자 함이다. 또한 지형적인 조건이나 성 둘레에 따라 너비와 길이가 정해져 축조되는 것과 더불어 상위지휘체계의 영진성 일수록 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더 크게 축조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의 길이는 비교적 5m라는 규칙이 일정하게 지켜지며 축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치성 길이 5m의 규칙은 성중조와 중중조에 축조되는 영진보성의 치성에서도 일괄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17세기에 축조되는 동래후기읍성의 치성에서도 길이가 5m로 확인되고 있어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의 길이는 5m로 조선시대 전 기간 내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은 치성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

한 시기의 여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치성을 비롯한 방어시설의 숫자 및 규모에 있어서도 단일한 축성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남해안 연해지역이 대 왜구 최일선 전략적 거점으로서 그 군사적인 기능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엄격한 축성 관리를 받으며 일관되게 축성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연해읍성, 영진보성, 치성, 왜구, 정방형, 장방형, 방대형

I. 머리말

우리나라는 古代 山城의 축조에서부터 近世 城郭 築城術의 結晶體인 邑城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방어주체인 體城部와 더불어 성곽을 방어하는 附帶施設이 다수 설치되어 왔다.

고조선 멸망 이후 漢四郡의 설치를 거치며 일련의 對中國鬪爭과 삼국정립에서 고대왕국으로의 발전과정에서 이뤄지는 내부적인 투쟁과 외부적인 전쟁을 거치면서 성곽 역시도 그 형태가 발전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중세 고려시대에는 다수에 걸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민족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일환으로 여러 형태의 성곽 축조가 이뤄졌다.

고려를 이은 조선시대는 고려 말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와 두만강, 압록강 이북의 여진족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책의 일환으로 邑城을 비롯한 다양한 관방시설을 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각 시대별로 성곽은 축성 목적에 따라 그 축조수법과 입지 및 규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축성의 관념은 민족자존의 절대 절명의 생존전략 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외세와 주변의 적으로부터 항상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성곽이 손쉽게 함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곽방어력의 증대는 어떤 시대나 민족, 나라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더구나 산성을 비롯하여 읍성 및 영진보성과 대부분의 관방성이 단일한 위곽형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성곽의 형태를 고려할 때, 성벽의 월경이 곧 성곽의 함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면 일찍부터 성곽의 방어력의 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성곽의 방어력 증가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체성부 자체의 성고를 높이는 방법과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양한 방어용 부대시설의 설치이다.

먼저 체성부의 성고를 높이는 것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성곽의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체성부의 높이를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성고의 증가에는 필수적으로 높이와 비례하는 기저부 너비의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저부의 너비도 성고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內托式의 경우에는 다소 성고를 높이는 것이 용이할 수 있지만, 挾築式의 경우에는 체성부의 상부에서 하부로 집중되는 무게중심으로 인해 기저부의 너비를 넓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 역시

체성부의 기저부로 집중되는 무게중심의 분산에 실패할 경우, 성벽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성부 자체 방어력의 증가를 위한 체성부 높이의 수·개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화포무기가 발달하여 상용화가 된 시기 이후에는 오히려 체성부의 성고가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남에 따라 읍성 및 산성을 비롯한 각종 성곽의 방어력 증대방법이 다른 각도로 모색되어야만 했다.

이와 같이 체성부에도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곽의 방어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축조된 다수의 성곽 체성부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들어서 축조된 성곽 부대시설 가운데에는 雉城, 甕城門址, 暗門, 女牆, 垓字, 羊馬牆, 木札, 陷奔, 鹿角施設, 甬道 등을 있다. 이 가운데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은 읍성에 축조된 대표적인 방어부대시설로서 남해안 연해읍성 방어시설의 구조와 축조수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해안 연해읍성에 축조된 방어시설 가운데 연해읍성의 구조변화와 축조양상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치성에 관해 살펴보고 더 붙여 남해안 방어의 한축을 이루는 영진보성의 치성과 비교를 통해 남해안 연해읍성의 한 단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치성의 명칭과 축조양상

1. 치성의 명칭

성곽의 방어시설은 적의 攻城武器와 대규모의 병력을 소규모의 병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이러한 방어시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 할 만큼 많은 성곽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부터 수많은 외침에 대항하여 다양한 방어시설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성곽의 방어시설 가운데에는 甕城, 雉城, 垓字, 羊馬牆, 女牆, 懸眼, 釣橋, 眉石, 空心墩, 甬道¹⁾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조선시대 전기에는

¹⁾ 용도는 치를 길게 잡아 늘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 군량을 운반하고 매복을 서기 위해서 낸 길을 의미한다. 『만기요람』 군정편, 부 관방총론, 關防輯錄甬道之法이라하여 “개성은 청석동을 가로 질러 성을 쌓았는데, 용도처럼 되어.....”라는 표현이 있다.

전대의 邑城에 비하여 해자, 치, 옹성, 여장이 새로운 방법과 규식으로 축조되고 있다.²⁾ 이 가운데 성벽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측하고 전투 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 시켜 장방형으로 내쌓은 구조물인 치성이 있다.

이 치성을 분류함에 있어 제일 먼저 시도되어야 할 것은 명칭의 문제와 유형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읍성에 축조된 치성의 경우, 여러 명칭으로 불렸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雉城, 曲城, 城頭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치성은 방형과 장방형의 형태로 체성부와 직선상을 이루는 곳에 설치된 것이며, 곡성의 경우는 체성부가 굽어 굴곡이 있는 곳에 설치된 것이나 반원형의 형태를 축조되어 있는 것이며, 치성 위에 간단한 건조물을 시설한 것을 敵臺라 부른다.³⁾ 城頭는 성곽의 네 모퉁이에 설치된 것으로 평지방형성에서 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城隅, 宮隅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은 명칭은 치성의 입지에 따른 명칭이며, 또한 치성 위에 누각의 유무에 따라 그 명칭도 다르게 불린다. 즉 누각이 있는 경우 鋪樓, 敵樓, 鋪舍라 하며 치에 砲를 설치하는 경우에 砲壘, 石樓라 한다. 또한 성문의 주변에 위치하며 옹성을 대신하거나 성문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치성의 경우는 적대라 부르고 있다. 이외에도 기능에 따라 甬道, 角樓, 空心墩 등으로 나뉘 불리고 있다.

1) 치성의 입지에 따른 명칭

- ① 雉城: 방형과 장방형의 형태로 체성부와 직선상을 이루는 곳에 설치된 것
- ② 曲城: 체성부가 굽어 굴곡이 있는 곳에 설치된 것이나 반원형의 형태를 축조되어 있는 것
- ③ 城頭: 성두는 성곽의 네 모퉁이에 설치된 것으로 평지방형성에서 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城隅, 宮隅라고도 불린다.
- ④ 敵臺: 치성 위에 간단한 건조물을 시설한 것

2) 치성의 용도에 따른 명칭

- ① 鋪樓: 누각이 있는 경우로 敵樓, 鋪舍라고도 함.
- ② 砲壘: 雉에 砲를 설치하는 경우로 石樓라고도 함.
- ③ 敵臺: 성문의 주변에 위치하며 옹성을 대신하거나 성문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치성.

²⁾ 車勇杰, 1991, 『長鬐邑城 築城法에 대한 檢討』, 『長鬐邑城』, 慶州文化財研究所.

³⁾ 車勇杰, 1991, 앞의 논문.

④ 이외에도 기능에 따라 甬道, 角樓, 空心墩 등으로 나뉘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은 학자들마다 용어사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전기에는 『조선왕조실록』에 敵臺로 표현되어 있고, 후기의 『輿地圖書』에서는 雉城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이전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사용된 치성을 따르도록 한다.

2. 치성의 축조양상

1) 조선시대 이전 성곽

치성은 삼국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체성부에 비하여 더욱 견고하게 쌓았는데, 고구려의 치성성벽은 대개 높이가 체성부와 동일하고, 길이가 5~9m이고 너비가 3~5m로 평면형태는 방대형으로 체성부에 직교하여 성외로 돌출되어 있다.⁴⁾

삼국시대 백제계 산성의 경우 충북 청원군 북일면에 소재하는 井北洞 土城에서 성벽 4城隅에 치가 축조되어 있다.⁵⁾ 특히 청주 정북동 토성의 경우에는 체성은 판축으로 축조되었으나 치는 성벽의 아래 면에서만 약 30cm의 두께에서 판축 층위가 나타날 뿐, 그 위로는 거의 황갈색 점토만을 가지고 축조되어 있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의 古利山城의 경우 동·서쪽의 성벽에 돌출한 길이 7.3m, 너비 5.8m의 장방형 치가 축조되어 있다.⁶⁾

충남 직산의 蛇山城의 경우 동문지의 좌우에 체성부와 직교하며 돌출한 장방형의 치가 확인되었다. 이곳 산성의 치는 길이가 8.4m, 너비가 5.4m 정도이다.⁷⁾ 그리고 사산성의 경우 체성은 성벽 외부에 기단석축을 2~3단 쌓았고 그 안쪽에 토루를 쌓았으나 치는 견고한 계단식의 석축을 7~8단 축조하여 방어력 증대를 기하고 있다.

부소산성의 경우 비록 성벽 외측 판축 전반에 관한 것이긴 하나, 성 내측의

4) 『三國史記』百濟本紀 第三 辰斯王條

5) 李元根, 1975, 『西原地方의 文化遺産』, 『月刊文化財』.

6) 鄭永鎬, 1975, 『百濟古利山城考』, 『百濟文化』 第7·8輯,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7) 즉 동문지 성벽의 북측의 제2영정주에서 북으로 276m로부터 직교하여 동으로 뻗은 석축 기단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 석축 기단은 할석으로 5·6단을 쌓아 성벽 내면으로 향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동문지 성벽의 남측에도 북측과 동일한 크기의 치가 장방형으로 병행하여 돌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곳은 2단의 석축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북측 성우의 성벽 석축 기단과 직교하게 장방형의 치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곳의 석축은 10단이며 최상부에는 잔돌을 깔아 놓았다. 기본 성벽 석축은 3단이고 직교하여 돌출한 치성 석축기단은 동문지 남측 치성과 같이 2단으로 되어 있다.

판축층의 두께가 두꺼운 층과 얇은 층의 비율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성 외측은 각 판축층의 두께가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정교하며 이는 치성을 포함한 성벽 외측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직접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에도 방어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장도 청해진 토성의 치성 또한 회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점토를 4~5cm 간격으로 번갈아 다졌으며 이러한 판축선이 정연하게 보이고 있다.

고려 말의 성곽에서 雉城이나 曲城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星州邑城의 경우 “州舊有土城 雉堞傾圮 羅閣凡百有餘間”이라 하여 고을에 예부터 토성이 있었는데 雉堞이 기울어 무너졌다고 하고, 黃澗邑城의 경우 “客館之隅 跨雉堞臨蒼崖 舊有樓曰駕鶴”이라 하여, 객관 모퉁이에 치첩이 있어 푸른 언덕에 임하여 있는데, 옛적에 이곳에 樓가 있어 駕鶴樓라 한다는 문구로 보아 치첩은 바로 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려 말의 읍성에도 치성이 시설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그리고 용인 처인성 지표조사 보고서에도 조사자는 성의 서남벽에서 중간 지점의 너비가 넓어 별도의 시설, 즉 치성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서북벽과 동북벽은 이 서남벽의 양단에서 회절하면서 북향하여 완만히 경사져 내려가고 있으므로 회절부는 보다 크고 높게 곡절하고 있어서 역시 치성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조사보고서에서 더 이상의 유구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손영식은 “산성의 경우 성벽과 능선이 교차되는 높은 지점에 치를 만들었으며, 평지성에서는 산지성보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치가 설치되었고, 치의 높이는 체성의 높이와 같이 하고 규모는 일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縱으로 5~8m, 橫 4~6m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성에서 치의 수는 성의 규모와 지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현존 성곽의 치를 살펴보면 전혀 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30~40 간에 하나씩 설치하였으며, 치의 형태는 장방형이 많고 반원형의 형태(예: 삼년산성)도 있고, 치의 축조는 체성인 성벽을 먼저 쌓고 덧붙여 축조하는 것이 보통이고 예외적으로 체성 조성 시 동시에 축조(예: 온달성, 삼년산성 서남치)한 경우도 보인다.”고 하였다.⁹⁾

8) 沈正輔, 1995,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376쪽.

9) 孫永植, 1987, 『韓國城郭의 研究』, 문화재관리국.

2) 조선시대 성곽

조선시대에는 『華城城役儀軌』에 “凡築城有制 古人言 城皆以千雉 白雉計之 所謂雉者 卽令之曲城也 城之 精神緊要處 都在曲城”¹⁰⁾이라 하고, 『正祖實錄』에는 “雉能藏身善伺 故取是象也 敵若來附 城面 則我不能屈矢斜彈 而被之鉤杆 已拔城根矣 苟使左右對雉 丸鏃交及 則飛樓雲 梯何所施也”¹¹⁾라 하였다. 또한 “城制에서 雉堞이 제일인데 華城에서도 雉制를 따랐다”고 하여 조선시대에도 치성이 널리 축조되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선조 때의 상신인 유성룡은 그의 축성론에서 치의 중요성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데 “城이면서 雉가 없으면 비록 한 사람이 堞 하나씩을 지킨다 하더라도 堞 사이에 방패를 세워서 밖에서 들어오는 화살을 막기 때문에 적이 성 밑으로 붙는 것을 발견하여 막아내지 못한다.” 『紀效新書』에는 “50堞마다 치 하나씩을 설치하는데 밖으로 2~3丈쯤 나가게 한다. 치는 50타씩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양쪽으로 보아가면서 발사하기 편리하며 적이 성 밑으로 붙어 올 수 없게 되었다. 임진 때 안주에 있을 때 생각한 계책으로 성 밖에도 지형에 따라서 치의 제도대로 따로凸자 모양의 성을 쌓고 그 가운데는 대포를 배치해 두며 위에는 敵樓를 세우되 두 樓 거리가 600~700步(또는 1,000步)쯤 되게 한다. 鐵丸을 넣어 양쪽으로 서로 발사하면 쇠와 돌이라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다른 첩에는 비록 지키는 병졸이 없더라도 다만 수십 명으로 포루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적이 비록 백만 명이라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丁若鏞은 『與猶堂集』에서 치성의 효용성에 대하여 “성보는 작으면 견고 하나 비록 작은 성이더라도 만약 치성이 없다면 성이 없는 것만 못하다. 우리나라의 성에는 모두 치성은 없고 女牆에 砲穴만 약간 파놓았으니 어디에 쓸 것인가. 적이 성 밑에 붙어 돌머리를 파낸다면 비록 돌을 깨서 던지고 물을 흘러 내려도 모두 적인의 등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丸箭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 두 치성 사이 불과 50~60步 지점에 환전이 서로 미치게 한다면 성에 붙은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²⁾

이러한 치성과 적대에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華城城役儀軌』卷首 圖說, 10卷 10冊 正祖 24年.

11) 『正祖實錄』卷46 21年 2月 己巳.

12) 丁若鏞, 『與猶堂集』卷181, 民堡議 堡垣之制.

- ① 兵曹啓 今考築城時 并築敵臺之狀 唐書 馬燧傳 設二門爲譙櫓 陸機洛陽記曰 城上百步有一樓櫓 外有溝渠 冊府元龜 唐王方翼築碎葉鎮城 立四面十二門 皆屈曲作隱伏出沒之狀 上國廣寧 山海等衛城子 皆有敵臺 請自今各處築城時 除城面屈曲處外 平直處隨其地形 一百步築一臺 從之。
- ② 兵曹啓慶尙道 昆南新城敵臺 前面過廣 左右過狹 不宜守禦 然此已造 不可改也 今後前面十五尺 左右各二十尺 以爲定制 且每一百五十步 置一敵臺 則功力省 而可以禦敵 從之。
- ③ 領中樞院事崔閔德獻議曰 臣向在江界 監築沿邊城子 時將水凍 女牆敵臺 未暇堅築 隍塹亦未深掘 然大概已成 各官之力 可自修築 野人之中 忽刺溫能攻城 曾攻開陽城 各自負板 進逼城下 積柴焚之 遂奪其城 此其驗也 願令邊郡當其農隙 各築女牆敵臺 以備不虞 且自古邊城 賊人乘夜不備 潛登城一呼 則城中褫魄失守者多矣 中國郡縣皆於城上 連置屋宇 令軍人常守 徹夜巡警 以絕賊人窺伺之謀 我國沿邊城上 無庇風雨之所 故風雨雪霜之夜則巡城者 皆下城安枕 常時雖擊(刀)刁斗 巡更 城上卒以童幼差定 實同兒戲 乞依中國之制 於城上置屋 使巡更者得避風雨常守城上 以備昏夜不虞之變 以此諭平安道都節制使李藏 訪問便否藏啓曰 道內邊城已造 女牆敵臺則依獻議更加修完 置屋之制 亦依中國體制 城上四隅 各置一間 使丁壯晝夜巡警 卿亦於道內北邊各官城子 依此例爲之。
- ④ 議政府據兵曹呈啓 自江界至義州沿邊各官 雖不得每邑置鎮 間一邑置鎮 然後防禦有實 於中央碧潼郡設鎮 其鎮屬軍人 令都節制使磨勘 以啓 沿邊各官赴防軍人 因每月遞代 一年之間 累次越險 人馬俱疲 軍額雖多 實無所用 今後道內馬步兵 皆以五人爲伍 每伍擇壯勇者一人 分爲三番 每一番馬步兵幾名 量其程途遐近 某官邑城赴防 則某官馬兵幾 步兵幾名 某口子赴防 則某官馬兵幾名 步兵幾名 預先分定輪番防戍 餘四人 令辦赴者糧料 所在官從而檢察 則非惟除每月遞代困苦之弊 抑亦軍額不減於前 而有實矣 然大概各處赴防軍 除其官馬步兵之數 邑城則馬兵不下二百步兵不下一百; 口子則馬兵不下 一百步兵不下五十 其邑城步兵一百內 防牌三十火砲軍三十 口子步兵五十內 防牌十五 火砲軍十五 并計爲便 令都節制使磨勘便否以啓 制賊之要 莫如火砲片箭 火砲則火藥難繼固未得常時(隸) [肄] 習 片箭須當肄習 可以制敵 去年已立 平安咸吉兩道邊郡習射論賞之法 片箭不在肄習之例咸吉道邊郡 與野人雜處 竝肄片箭 固爲未便 平道道則竝令肄習論賞 烟臺之設所以候賊也 今閔延等處各官造築烟臺未經一年 或致傾圮 專是監築官吏不用心也烟臺四面下廣 每一面二十尺 高

三十尺 皆用布帛尺定制改築 四面皆置坑坎使五人持兵器火砲 十日相遞 晝夜候望 如有擅離者 依律痛懲 沿邊各口子造築石堡時 敵臺甕城及烟臺見樣令修城典船色圖畫 下送都節制使 憑考監築。

- ⑤ 野人與倭奴皆懷報復之心各道各處城子不可不築 然此輩既不爲火砲則雖甕城敵臺可也 甕城之長 不下五六十尺 但置於城門而已 若敵臺則每三百尺置三敵臺 厥數甚多而況所築全用鍊石工役尤難宜皆除之 速令畢築如是則民力可省 而事功易就矣 沿海郡縣 每有金城 堂堂屹立 則彼雖有報復之心 安能爲害乎。
- ⑥ 召領議政黃喜右議政申概左贊成河演右贊成崔士康左參贊皇甫仁右參贊李叔時兵曹判書鄭淵參判辛引孫等議備邊之策僉議云 甲山地面賊人聲息屢報 宜加兵卒 以備禦敵 慶尙道泗川固城寧海最爲近海防禦緊急邑城未築宜急築之下三道及 黃海道沿邊散居人民彼賊可畏宜令移入陸地以避賊變又各官城及甕城敵臺池濠一時竝作爲難宜當漸次築之且下三道沿邊 各官築城畢役後內地各官邑城以次築之爲便從之。
- ⑦ ...義州城 高十二尺 今加築二尺 每一百五十尺 置敵臺 長十尺 廣五尺。
- ⑧ 還宮時 御輿仁門 命雉城當築處 以紅旗排立 教曰 一雉之間 以一百三十步爲準以近城芹田貯水 害城址命盡填芹田顧禮判洪鳳漢曰 東門當爲幾雉 對曰 光熙以北 以六雉磨鍊矣。

①의 기사는 세종 12년 9월 24일 임술에 병조에서 각처의 성 축조 시 적대를 아울러 쌓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명나라 廣寧衛·山海衛 등의 예를 들어 각처의 성을 구축할 때는 城面이 굴곡이 진 부분은 제외하고 평평하고 곧은 부분에는 그 지형을 따라 1백 보마다 1개의 臺를 쌓도록 하였으며 이때 세종은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종 12년 9월 이후 신설되거나 수·개축되는 치성의 경우는 100보마다 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②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3년 뒤인 세종 15년 1월 13일 정묘일에 병조의 계문에서 150보마다 적대를 하나씩 설치하면 공력이 적게 들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적대의 설치거리가 50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②기사의 내용에서는 적대의 규식에 대하여 앞으로 15척×20척으로 규정하고 거리도 150보로 규식을 정하고 있어 이때부터 신축되는 읍성의 경우 치성의 간격이 150보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적대간의 간격에 대하여 ⑤의 기사 내용에는 領中樞院事 崔閔德이 “野人과 倭奴가 모두 火砲를 쓰지 못하므로 瓮城과 敵臺를 없애도

가하다고 하였으며, 적대의 경우 매 3백 척마다에 세 개의 적대를 설치하여 그 수가 매우 많으며 축조 시 사용되는 석재의 경우도 가공석이라, 工役이 매우 어렵다고 하여 모두 없애 버리고 체성부만 빨리 쌓도록”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 22년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되었거나 그 이전에 축조된 적대의 경우는 150 척마다 하나씩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①②⑤의 기사에서 각각 100보와 150보, 150척으로 표기되어 있는 적대간의 간격이 보일 경우 1보를 5척으로 환산하다 하여도 포백척의 기준치인 46.73cm를 적용하면 230m, 350m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된 치성의 거리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150척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¹³⁾

다음으로 ②의 기사에서는 경상도 昆南의 敵臺가 앞면은 너무 넓고, 좌우는 너무 좁아서 守禦하기에 적당치 못하나 이미 만들어 놓아서 고칠 수가 없어 이후 앞면은 15척, 좌우는 각 20척으로 제도를 정하고, 또 1백 50보마다 敵臺 하나씩을 설치하면 공력이 적게 들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기사는 세종 15년(1433) 곤양읍성에 축조한 적대의 규모가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너무 긴 장방형의 형태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나 이미 축조된 것은 수축할 수 없다하고 이후 축조되는 적대의 경우는 축조 규식을 새로 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기사는 세종 19년 8월20일에 영중추원사 최윤덕이 “연변의 성 쌓는 것을 감독할 때에, 땅이 얼어서 女牆과 敵臺를 굳게 쌓지 못한다다가 성 밑 구덩이 역시 깊이 파지 못했으나 대개는 이루어졌을 것이며, 각 고을의 자력으로 수축할 수 있으므로 邊郡으로 하여금 농사 틈을 타서 각각 여장과 적대를 쌓게 해서 뜻밖에 일어나는 근심을 대비하소서.”라 하여 연변의 읍성의 치성과 여장을 해당 읍성민으로 축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의 예로 들어 성위 네 모퉁이에다 각각 한 칸간씩 집을 짓게 하고 장정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순찰하게 하였다. 는 내용으로서 이때에 함경도지역 일대의 연변읍성에서는 치성 위 특히 성우에는 각루가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루는 선조 27년 10월 1일(을사) 영의정 柳成龍이 戰守에 관해 올린 機宜 10條의 내용 가운데 守城편에 “雉堞의 제도를 참작해서 砲樓를 만들고 굽어진 곳마다 서로 수비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치성의 상단부에는 각루를 비롯한 누대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누대는 조선 전기부터 축조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이때에 여장과 적대를 해당 지역민들로 축조토록 하고 있어 기존의

13) 沈正輔, 앞의 책.

중앙의 통제 속에 축조되던 각종 부대시설이 이때부터 지방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④기사는 세종 20년 1월 15일 경자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연변 여러 구자에 보루 축조 시 적대·옹성 및 연대의 見樣을 修城典船色에게 圖本을 만들게 한 다음, 도절제사에게 내려 보내 이를 참고하여 쌓도록 하고 있어 이때에 지방서 내지 축성 도면을 만들어서 치성을 축조토록 하고 있어 치성의 규모와 형태가 통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적용 여부는 현재까지 고고학적 조사에 기인하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⑥기사는 세종 24년 7월 20일 무인에 세종이 대신을 불러 국경 경비 대책을 의논한 내용으로, 각 고을의 성과 옹성·적대·池濠를 일시에 모두 만들기는 어려우니 점차로 축조토록 하고, 또한 하삼도 연변 각 고을의 축성이 끝난 후에 內地 각 고을의 읍성을 차례로 쌓도록 건의하여 세종의 허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도 연해읍성의 축조시에는 체성부만 필축을 보고 부대시설은 여전히 필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연해읍성의 축조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연해읍성의 축조 이후 내륙읍성도 계속해서 축조토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기사의 내용은 세조 12년 2월 3일 을해에 都體察使 韓明澮가 義州城의 높이를 기존 12척에서 2척을 더 쌓아 14척으로 하고, 1백 50척마다 敵臺를 두도록 하였으며 치성의 규모 역시 길이는 10척, 너비는 5척으로 하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서 세조 12년에 들어서는 치성간의 거리가 150척이며 평면플랜은 10척×5척으로 세종 15년에 규정된 규격인 20척×15척에 비해서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축소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평면플랜에 있어서는 방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⑧기사는 영조 29년 2월에 영조가 홍인문에 들어서 치성을 마땅히 증축해야 될 곳에 紅旗를 세워 놓으라고 명하고, “한 개의 雉牆 사이는 1백 30보를 기준으로 하라. 한 것으로 이때의 치장은 치성으로서 조선 후기인 영조 29년(1753)에는 각 치성 사이가 130보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130보는 조선 전기의 150보 내지 150척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용척의 차이로 보이나 단언할 수는 없다.

Ⅲ. 하동읍성 치성의 현황과 특징

1. 하동읍성 치성의 현황

하동읍성에서 최근까지 조사된 치성의 숫자는 7개소로 이 숫자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11개소의 63%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해안지역의 연해읍성의 하나인 하동읍성에 축조된 치성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 남해안 연해읍성의 축조수법과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동읍성에서 조사된 치성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하동읍성에서 조사된 치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 1 치성

이곳은 서문지에서 북쪽으로 9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현재 치성의 4면이 남아 있다. 북측벽과 남측벽의 경우에는 일정부분까지 축성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치성의 전면에 해당하는 서벽의 경우에는 외벽 면석부분이 모두 훼손되어 지대석과 기단석 일부만이 남아 있다. 차후에 잡석으로 일부를 보강하였다.

치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기저부는 생토면을 정지하고 치성 축조를 위한 기저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치성 전면의 자연경사면에 인두대 크기의 활석을 이용하여 3단의 기단보축을 쌓고 있으며 이 3단의 기단보축은 계단상을 이루며 내벽쪽으로 들여쌓기를 실시하고 있다. 지대석은 길이 40~50cm, 두께 15~20cm 내외의 자연석을 깨내 판석을 이용하여 수평줄눈을 맞추어 쌓여 있다. 그 위에 70cm×65cm, 73cm×60cm, 75cm×45cm, 80cm×65cm 크기의 모서리부분만 가공한 기단석을 면석부분이 보이도록 입수적으로 세워 쌓았고, 그 위로 높이를 다르게 하면서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석재의 크기는 상부로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치성 적심부는 주먹 크기의 자갈과 활석을 막 채워놓았으며 덧대어져 있는 체성부의 외벽과 비교할 때도 그 축조수법이 조잡한 것으로 볼 때 체성부의 축조와는 약간의 시기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급조한 느낌마저 든다. 확인된 치성의 규모는 체성부와 접합된 부분 너비 6.7m, 외벽 전면의 너비 5.8m, 잔존 길이 5.1m이며 잔존 최고 높이 5.7m이다. 치성의 평면플랜이 외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사된 7개의 치성 가운데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다음으로 서북 제 1 치성의 내벽의 체성은 외벽에는 생토층면을 정지하고 그 위에 40~50cm×20~30cm를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자연대석의 城石을

올려놓았으며 내벽은 황백색 마사토 지반 위에 약간 큰 割石으로 쌓았다. 이 내외벽의 경우에는 동시에 축조하였으며, 처음부터 협축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상단부를 올려 쌓으면서 내벽측은 50cm, 55cm, 60cm, 120cm의 높이로 계단상을 이루며 협축하고 있다. 이 계단상의 내벽은 길이 20~60cm×20~40cm 가량의 장방형 석재들로 축조되어 있다. 단면을 확인한 결과 하동읍성의 내벽 축조는 적심석과 내벽 면석이 모두 외벽 면석과 나란하게 열 지어 축조되어 있으나, 다른 조사구간에서는 붕괴된 외벽 면석 바로 뒤에 城壁石에 붙여서 石材의 세로방향이 성벽의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어 있으며, 내벽쪽의 석재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채워져 있어 구간별로 축조수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외벽의 기단부 너비는 기저부가 약 6.3m 이고 최상부는 2.4m이고, 그 다음 석렬이 40cm, 130cm, 110cm의 너비로 축조되어 있으며, 女牆이나 楣石은 잔존하지 않고 있다. 최상단부에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여장의 최상단부는 기와로 마무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돌출한 치성에서도 기와들이 출토되고 있어 치성에는 기와지붕을 가진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건물은 세종 19년에 최윤덕의 獻議에 따라 도절제사 이천이 아뢰기를, “도내의 邊城은 이미 女牆과 敵臺를 만들었사온즉, 최윤덕 현의에 의하여 다시 완전하게 수리하고, 집을 짓는 제도도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성위 네 모퉁이에 다 각각 한 칸씩 짓게 하여, 壯丁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순찰하게 하겠습니까고 하였으니, 경도 도내의 北邊 각 고을의 성을 이 예에 의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치성 위에는 순찰을 위해 설치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계단지는 치성 내벽의 끝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곳 치성 계단지는 구지표를 제거하고 그 아래 생토층면을 정지하고 그 위에 점토를 다져 지반을 형성한 뒤 계단 왼쪽 바깥쪽에는 길이 50cm, 두께 30cm 내외의 세장방형의 치석된 돌들이 채성부와 직교하게 연결되어 치성 내벽의 최하단부에 접해 있고, 오른쪽은 바깥쪽을 보호하는 석렬이 유실되었다. 계단지의 내부는 바깥 석렬 사이에 할석들과 자갈을 채워 놓았으며, 그 위에 자연대석을 군데군데 올려놓았다. 이 계단지는 너비 140cm, 길이 110cm이다.

2. 제 2 치성

서북 제 2 치성은 서북 제 1 치성에서 북쪽으로 약 114m 떨어진 해발고도

14) 『世宗實錄』 卷78 19年 8月 20日(丁丑).

125m 지점의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당시에는 성 외벽 쪽으로 성벽석이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만큼 성벽 뒷채움석 및 상부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덮여 있었다. 치성이 덧대어져 있는 체성부의 경우에는 외벽면석의 경우 많게는 7~8단이 남아 있고 적심부는 거의 다 남아 있다.

치성의 북쪽은 지대석을 포함하여 작게는 2단에서 많게는 6단이 남아 있고 치성의 전면에 해당하는 서벽의 경우에는 지대석을 포함하여 2~3단 정도 남아 있으며 나머지 외벽 면석부분이 모두 훼손되었다.

치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대석 위에 기단석과 성벽석이 축조되고 그 내부는 할석으로 채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토면을 정리한 후 가장 하단에 모서리를 치석한 100~140cm 내외의 자연석으로 지대석을 삼고 그 위에 90cm×90cm 크기의 기단석을 안쪽으로 물려서 쌓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혼용되어 있다. 이 90cm×90cm 크기의 할석은 세워 쌓았고, 이 성석과 성석 사이 생기는 'V'자의 틈을 40~45cm×10~20cm 크기의 장방형 면석으로 마감하여 수평을 맞추고 그 상부에도 역시 동일한 크기의 장방형 면석들을 이용하여 수평줄눈을 맞추어 쌓여 있다. 이곳에서는 외벽 면석의 가장 앞부분에는 입수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의 뒷채움석의 경우에는 외벽 면석에 직교하게 길게 쌓고 면석부분이 앞으로 보이도록 쌓았다. 또한 체성부에는 '品'자형의 축조수법과 달리 수직으로 장방형의 면석을 포개어 축조하는 수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의 체성부에 비해서는 쌓은 수법이 다소 조잡해 보인다. 이 서북 제 2 치성에서는 치성 전면에서 기단 수평화 구간이 확인되고 있는데 치성의 북쪽에 축조된 지대석의 높이와 남쪽에 축조된 3단의 성석과 그 높이가 동일하며 전면의 가운데 부분에 다른 기단석의 경우 눕혀쌓기를 실시한 반면 기단 수평화 구간은 세워쌓기를 실시하며 그 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 제 2 치성은 체성부와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제 2 치성의 규모는 너비 7.1m, 길이 5.1m, 잔존 높이 2.8m로 조선 전기 세종 15년에 규석화 된 15척×20척에 비해서는 길이가 짧다.

하동읍성 제 2 치성은 지대석의 크기가 100~140cm 내외이며 지대석을 물려 쌓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용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10~20cm 이상을 물려서 쌓는 여타 읍성 축조수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제 3 치성

제 3 치성은 하동읍성의 북쪽 성벽에 해당하는 곳으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양경산 정상부(해발 145m)를 통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조사 당시에는 성 외벽

쪽으로 성벽석이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만큼 성벽 뒷채움석 및 상부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덮여 있었다.

이 치성의 축조수법은 먼저 생토면의 바닥을 정지하고, 지대석은 2.7m×0.45m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자연대석을 치석하지 않고 세로방향으로 눕혀 쌓았으며, 외벽 면석이 20cm 안으로 물려서 입수적 되어 있다. 지대석 위의 기단석은 횡평적을 실시하고 상부로 갈수록 삼각석이나 부정형 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으며 체성부와 달리 성벽과 성벽 사이의 틈새에 썰기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제 3치성은 초축 시 길이 4.1m로 축조되었고 외벽 면석부분도 지금 보다 체성부쪽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치성의 증축 시 외벽 지대석의 보강토를 정지하고 현재의 평면플랜으로 축조하였다. 이것은 여러 번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치성의 현재 규모는 너비 7.4m, 길이 5.1m 잔존 높이 약 3m 정도이다. 너비는 조선 전기 세종 15년에 정해진 규격과 유사하나 길이는 현저하게 짧다. 이 치성은 체성부에 덧대어져 있다.

제 3 치성의 내벽에서는 외벽쪽으로 계단상의 내벽이 확인되었다. 내벽의 기저부는 외벽에서부터 약 6m 정도로 추정되며 체성부의 너비는 약 4.5m인데 이 가운데 약 3.5m 정도가 초축 시 축조된 성벽이고, 그 이후는 석축을 계단상으로 덧대어 축조하고 있다.

이 제 3 치성이 위치하는 양경산 정상부는 고위 평탄면으로 멀리 남해에서 이 지역으로 출입하는 수륙교통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망대지로 추정되는 곳인데 현재 건물지의 흔적도 일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을 감안하여 북벽 최상부인 이곳에 치성과 망대지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치성 역시 체성부에 덧대어져 있고, 여러 번의 증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제 4 치성

이 치성은 동문지 웅성으로부터 약 90m 떨어진 해발고도 105m 지점의 비교적 급경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치성은 너비가 6.6m, 길이가 북쪽은 5.8m, 남쪽은 6.1m, 잔존 최고 높이 4.4m이다. 원래 높이는 대략 5m 정도로 추정된다. 이곳은 급경사 지역으로 치성 전면에서 보면 기단 수평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치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기저부 경사면을 ‘L’자상으로 절토하고 바닥에 인두대 크기의 활석을 깔아 좌우의 수평을 맞춘 다음 그 위에 눕혀쌓기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쌓고 절토한 부분이 끝나는 곳에 면석이 외벽방향으로 보이게 하여 세워쌓기를 실시하여 높이를 맞추고 있다.

다음으로 치성 외벽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북쪽 기단석의 경우 45cm×25cm의 장방형 석재와 장대석을 교대로 쌓으며 지대석은 없다. 상부 성벽석 사이사이에 켜기돌을 넣어서 난적쌓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쪽은 가공하지 않은 100cm×40cm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석축하고 있다. 치성이 접합하는 북쪽 체성부의 앞부분은 성벽 배부름 현상으로 인해 튀어나와 있으며 체성부의 앞에는 점토를 이용하여 보충한 흔적이 보인다. 이 치성의 남쪽 측벽 하부에는 40cm×50cm×35cm 크기의 활석을 바깥에 쌓고 내부 채움석은 자갈과 주먹 크기의 활석을 이용하여 채워 넣은 너비 1.4m 높이 70cm의 기단 보충부가 축조되어 있다. 이것은 지대석이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외에 雨水로 인하여 치성의 기초부가 훼손되어 붕괴되는 것을 방지코자 시설된 것이다. 이곳 하부에서 분청사기 저부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 하동읍성 동북 제 4 치성의 경우에는 치성 축조 시 일정부분은 다시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것은 하동읍성에서 조사된 치성들의 접합부의 축조양상이 거의 동일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적어도 제 4 치성의 경우 처음 축조 논의 시에 계획한 지점에 치성이 계획대로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5) 제 5 치성

서문지에서 서남쪽으로 67m 떨어진 해발 104m의 구릉 정상부 돌출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서문지를 지난 체성부가 주변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이곳의 정상부를 지났다가 다시 내려가는 지점으로 주변에서 가장 높다. 실제로 이 치성의 정상에서 사방을 보면 멀리 서쪽에 남해가 보이고 주변의 지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치성의 4면이 남아 있으며 북벽과 남벽의 경우에는 일정부분까지 축조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치성의 전면에 해당하는 서벽의 경우에는 외벽 면석부분이 모두 훼손되었고 다만 지대석과 기단석 일부만이 남아 있으며 후에 잡석으로 일부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치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암반지대의 굴곡을 줄이기 위해 생토면을 정지하고 바닥에 황적갈색 점토를 깔아 다진 후 두께 30cm의 치석한 장방형 석재로 면을 맞추었으며 그 위에 기단석을 12~13cm 뒤로 물려서 설치하고 성석은 가급적 평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세워쌓기·눅혀쌓기를 석재에 따라 고르게 실시하고 있다. 성석의 크기는 50~100cm 내외의 것이 대부분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은 성석으로 축조하고 그 틈새

를 썰기돌로 메우는 방식이다. 이 치성은 초축 시에는 약 5m의 길이로 축조되었다가 증축 시에 지금의 길이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조 구분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치성 전면 하단부 중앙에서 치성과 나란하게 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이 주혈은 직경이 대략 5~9cm로 해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주혈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으며 2열로 나란하며 치성 바깥에 설치한 트렌치 주변에도 이 열과 연결되는 주혈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주혈은 치성 축조 시 사용된 架構施設 내지는 기저부의 기반암 지대를 정지하고 토사의 유실을 막기 위해 바닥을 지지 하던 것과, 해자 방향으로의 기울어져 있고 현재 확인되는 수혈의 깊이로 볼 때 치성에 접근하는 적을 차단하기 위한 木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¹⁵⁾

즉 해미읍성과 관련한 문헌기록에 치성 및 체성부 외벽 하부에 탱자나무를 이용한 장애물을 설치한 것과 최근 조사된 사천읍성의 치성 바닥과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직경 5~9cm 주혈의 경우 방어를 위한 장애물의 흔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외벽 면석 뒤에는 70cm 내외의 침석이 성벽 방향에 직교되게 놓여 있으며 치성은 성벽에 덧대어 축조되어 있으며 치성의 규모는 너비 7.4m, 길이 9.4m, 최고 잔존 높이 4.93m에 이른다.

6) 제 6 치성

이 치성은 제 5 치성으로부터 남쪽으로 92.3m 떨어진 해발 80m 지점에 축조되어 있다.

치성의 체성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치성은 북쪽에서 경사져서 내려오는 암반지대의 굴곡을 줄이기 위해 생토면을 ‘ㄴ’상으로 정지하고 바닥에 황적갈색 점토를 깔거나 잔할석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다진 후 지대석을 축조하였다. 그 위에 기단석을 설치하고 성석은 가급적 평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세워쌓기·늑혀쌓기를 석재에 따라 고르게 사용하고 있다. 성석의 크기는 50~100cm 내외의 것이 대부분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은 성석으로 축조하고 그 틈새를 썰기돌로 메우는 방식이다.

외벽 면석 뒤에는 70cm 내외의 침석이 성벽 방향에 직교되게 놓여 있으며 또 치성의 하단부에 치성과 나란하게 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이 주혈은 직경이

¹⁵⁾ 木杙은 땅에 박은 방어수단의 말뚝으로 『左傳』에는 “以杙扶其傷而死”라 하여 “말뚝에 살이 굽혀서 그 상처로 죽는다”라고 되어 있다. 柳成龍은 『西厓集』에서 壬辰倭亂 당시 왜군이 平壤城을 점령하고 수비하느라 평양소성 안팎에 木柵과 아울러 杙木을 설치했다는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垓字 내에는 木杙施設이 있으며 치성에서 조사된 예는 아직 없지만 海美邑城의 치성 외벽에 탱자나무를 심어서 성에 접근하는 적을 경계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목익시설이 치성의 전면에도 설치하여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7~8cm가 대부분이나 부분적으로 직경 20cm 이상의 것들도 일부 확인되고 깊이가 약 50~60cm 정도이다. 또한 이중으로 된 주혈도 확인되고 있다. 직경 7~8cm 주혈의 경우 방어를 위한 장애물의 흔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 6 치성의 경우 너비 7.4m, 길이 9.8m, 최고 잔존 높이 5.4m로 초축 당시에는 길이가 5m 내외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앞부분에 바닥을 정지하고 계단식으로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기단석과 성석들을 쌓아 올렸다. 이와 같은 주혈은 밀양읍성 조사 시에도 내벽과 적심부에서 나타나고 있다.¹⁶⁾

7) 제 7 치성

제 7 치성은 남문지에서 서쪽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다가 산등성이가 굴절되는 해발 69m 지점의 평탄한 곳에 축조되어 있으며, 남문지로부터 83m 지점에 위치한다. 제 7 치성의 규모는 너비 6.2m, 길이 4.4m, 최고 잔존 높이 0.67m로 서벽이 끝나는 지점과 남벽이 시작되는 지점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는 城隅이다.

지대석을 포함하여 2단만이 남아 있으며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적갈색 점토로 바닥을 정지한 후 장방형의 치석한 두께 10cm 내외의 판석을 이용하여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60~130cm×50~80cm 내외의 거칠게 치석한 자연석으로 기단석을 축조하고 있다. 2단만 남아 상단의 축조상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단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이사이에 썰기돌을 끼워 놓고 있다. 내벽의 뒷채움석은 체성부의 뒷채움석과 대동소이하며 인두대보다 더 큰 할석들로 채워놓고 있다. 체성부에 덧대어져 있으며 체성 접합부에서 확돌이 뒤집어 진 채로 발견되었다. 내벽이 급경사인 관계로 계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해자까지의 거리는 2.7m에 불과하고 성 외벽에서 양마장까지가 13m로 하동읍성 전 지역에서 가장 작은 치성으로 인접한 제 5·6 치성에 비해서는 조잡하다.

2. 하동읍성 치성의 특징

하동읍성에서 현재 확인되는 치성의 개수는 총 11개소로 동·남벽 문지에서 개구부 방향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일률적으로 적대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문지의 경우 현재의 문지에서 치성까지의 거리는 67m이나 문지에서 북쪽으로 약 13m 떨어진 지점에 체성부를 폐쇄한 지점¹⁷⁾이 확인되고 있는데 제

¹⁶⁾ 밀양대학교박물관, 2002, 『밀양읍성』, 96쪽.

5 치성으로부터 90m 되는 지점이다. 이것은 하동읍성의 치성 가운데 문지의 출입구를 방어하는 적대의 경우는 90m 거리를 맞춰 축조되어 있고, 현재의 서문지는 초축 당시의 문지가 폐쇄되고 서남쪽으로 옮겨져 새로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동읍성 치성의 배치 상태를 살펴보면 총 11개소 가운데 서벽과 서남쪽에 집중적으로 치성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동벽에 비해 경사도가 완만하고 남해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침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치성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치성의 배치는 서문지를 기준으로 좌우에 각 2개씩 4개소가 축조되어 있고 북쪽 정상에 1개소, 서남, 동남 모서리에 각 1개소, 그리고 동문지 좌우에 각 1개소씩과 동남 성우에서 동쪽으로 103m 떨어진 곳에 1개소가 축조되어 있으며, 서북벽쪽의 제 1 치성~제 2 치성간의 간격이 102m, 제 2 치성~제 3 치성간 간격은 48m, 제 3 치성~제 4 치성간의 간격이 114m, 거기서 동문지 웅성간의 간격이 90m, 다시 서문지~서남쪽 제 5 치성간의 간격이 78m, 제 6 치성간의 간격이 90m, 제 7 치성간의 간격이 102m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세종 15년에 세운 규식¹⁹⁾인 150척(70m)마다 적대를 하나씩 쌓도록 규정한 것에도 맞지 않으며, 문종 원년 정분의 계문에 나타나듯 연해읍성들이 규식에 맞춰 쌓은 것이 없다는 계문의 내용과도 일치 하고 있다.²⁰⁾ 더욱이 하동읍성의 치성들은 문종 원년(1451) 당시에도 치성이 4개소만이 쌓여 있었으며 이것도 모두 규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단종 즉위년인 1452년에는 아직도 치성이 다 축조되지 않다고 해서 처음 계획한 11개의 치성이 이때에도 아직 畢築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동읍성의 조사에서 확인된 치성 가운데 제 5·6 치성의 경우에는 초축 시에는 길이가 5.1m이고 증축하여 너비와 길이가 각각 7.4m×9.4m, 7.4m×9.8m로 세종 15년에 정해진 15척×20척의 규식에 일치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치성들은 문종 원년 정분의 계문 이후에 증축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치성들의 너비×길이를 확인하면 초축 당시 하동읍성 치성의 너비는 대략 7m

17) 서문지 웅성 체성부와 성벽 체성부가 만나는 접합부에서 북쪽으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너비 4m의 단면 U자상의 구가 나타났고 내부에는 물이 흘러간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U자상의 구는 트렌치 조사 결과 해자까지 연결되고 있다.

18) 손영식, 1987, 『韓國城郭의 研究』, 207쪽.

19) 『世宗實錄』卷59 15年 正月 丁酉, “兵曹啓 慶尙道昆南新城敵臺 前面過廣 左右過狹 不宜守禦 然此已造 不可改也 今後前面十五尺 左右各二十尺 以爲定制 且每一百五十步一敵臺 則功力省而可以禦敵從之。”

20) 『文宗實錄』卷9, 元年 9月 庚子; 『愛日堂先生實記續本』卷上, 『請慶尙忠清各官城子尺量啓』

내외이고 길이는 5m로 계획되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동읍성 치성의 평면플랜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종 15년에 세운 규식에 따라 치성을 설치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사된 7개의 치성 가운데 길이 : 너비가 1 : 1의 정방형을 띠는 것이 제4 치성이고 길이 : 너비가 1 : 0,74의 전후의 것은 2개소로 제 5·6 치성으로 방대형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1 : 1.3~1.5의 차이를 보이는 장방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것은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여타의 읍성에서 확인된 치성의 평면플랜과 비교해 봐도 장방형이 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 참조.

표 1. 하동읍성 치성 현황

읍성명	치성 수	평면 형태	너비	길이	잔존 높이	비고
하동읍성	제1치성	장방형	6.7m	5.1m	5.7m	덧대어 축조.
	제2치성	장방형	7.1m	5.1m	2.8m	치성 북측벽은 동시 축조. 남측벽은 덧됨.
	제3치성	장방형	7.5m	5m	2m	덧대어 축조. 초축 시는 길이가 4.1m.
	제4치성	정방형	6.6m	6.1m	4.4m	덧대어 축조. 남측벽 하단에 기단 보축 실시.
	제5치성	방대형	7.4m	9.4m	4.93m	덧대어 축조. 치성 전면 하단에 주혈 확인.
	제6치성	방대형	7.4m	9.8m	5.4m	덧대어 축조. 치성 주변에 다수의 주혈 확인.
	제7치성	장방형	6.2m	4.4m	0.67m	성우로 덧대어 축조.

다음으로 하동읍성 치성을 여타 조선시대 읍성의 치성과 비교해 보면, 먼저 光海君때 축조된 彦陽邑城의 치성 가운데 체성부와 동시 축조된 제 11 치성의 경우 너비×길이가 8m×10.45m로 세종 15년에 정해진 15척×20척(7m×9.4m)보다 크나, 제 9 치성의 경우에는 7.2m×9.44m로 일치하고 있으며, 문종부터 단종 때까지 축조된 고현읍성의 경우에는 하동읍성 제 5·6 치성과 유사한 가운데 태종 17년에 석축성으로 개축된 울산 병영성이나 세종 12년에 개축된 마산 합포성은 정방형으로 너비는 비슷하나 길이는 더 길다. 이처럼 경남지방에서 조사된 읍성 치성의 평면플랜은 하동읍성의 평면플랜인 7m×5m 보다는 크기나 길이에 있어서 그 양상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동읍성과 여타의 읍성에 나타나는 치성 축조 양상의 다양성은 용적의 차이와 축성연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근래에 조사된 치성에

의해 다소 다른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즉 합포성지의 경우 북벽에 인접하는 두개 소의 치성 가운데 한 개소의 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7m 내외인 반면에 서쪽으로 인접한 치성의 경우는 8m 내외로서 너비가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체성부와 동시에 축조되고 그 거리가 서로 인접한 성우이면서 평면플랜이 장방형과 방대형을 띠고 규모가 다른 영산읍성의 경우를 볼 때 더욱 확연해지는 것이다. 또한 제주읍성의 경우에도 각각 치성간 거리가 74m와 69m로 인접하면서 동시에 축조된 치성이 7.1m×12.8m, 11.3m×11m, 8.9m×11m,가 잔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방대형과 정방형, 장방형이 적절히 혼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2 참조

다음으로 하동읍성 치성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치성은 체성부에 덧대어져 축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서북벽 제 2 치성의 경우 남쪽은 체성부에 덧대어져 있고 북쪽은 동시 축조가 이루어진 듯 맞물려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하동읍성의 증개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즉 하동읍성의 초축 당시에 심정된 치성의 위치에 체성과 더불어 치성을 동시 축조하였으나 그 공정을 완성하지 못하다가 후대에 다시 축조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朝鮮王朝實錄』 端宗朝에 충칭·전라·경상도 都體察使 丁恭의 啓問²¹⁾에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동읍성의 치성은 처음 성기 심정 당시에는 축조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왜구 침입의 빈도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방어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치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동읍성의 치성들은 그 축조수법이 조잡하고 석재 역시 급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성의 경우 '품'자상의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한 것이 성벽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치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축조수법상의 정형성이 체성에 비해 훨씬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치성의 축조 시에는 치성이 축조될 지점의 체성의 일부분을 들어내어 다시 쌓고 그 앞에 치성을 덧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치성이 덧대어지는 체성부의 석재가 잘 치석된 장방형 판재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있고, 그 부분 이외의 지역에는 장방형의 석재를 기단부로 조성하고 그 위에 장대석을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로 축조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 하동읍성 치성은 경사면의 암반층을 정지하고 기단 수평화 작업을 실시한 기저부가 축조된 것, 경사면을 정지하고 황적갈색 점토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이층으로 축대를 구성하여 수평을 맞추고 축조한 것, 기반암층을 정지하고

21) 『文宗實錄』卷9, 元年 九月 庚子; 『愛日堂先生實記續本』卷上, 「請慶尙忠淸各官城子尺量啓」

황적갈색 점토를 다짐한 후 네모반듯한 정방형의 치석한 지대석을 설치하고 성벽을 축조한 것 등 3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지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릉 정상부나 평탄면에는 세 번째가 많고 경사가 심할수록 첫 번째, 두 번째가 교대로 축조되어 있다. 주로 첫 번째는 서북벽에, 두 번째는 동벽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문지를 기준으로 서남벽에 축조되어 있다. 또 하동읍성의 치성이 덧대어진 체성부의 좌우에서 축조 구분 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축조 구분 지점은 여타의 읍성에서 나타나는 입수적인 장대석과 달리 장방형의 석재를 놓혀쌓기를 실시하여 좌우의 체성벽의 축조수법과 차별을 두는 것으로 始點과 終點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과 종점식으로 각 구간의 거리를 산출해 본 결과, 한 개의 성벽 공정 구간은 대략 30m(포백척 환산치)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서벽과 북벽 치성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면천읍성 서치성의 북측벽 기단부를 이루고 있는 각석 1매에는 “己未年 沃川始面 長六十尺 四寸”이라 새겨져 있어 세종 21년 옥천에서 동원된 부역민이 이 성석에서부터 60척 4촌의 길이를 축조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²²⁾ 이 60척 4촌을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30m 전후로 하동읍성의 축성구간의 길이와 일치하고 있어 하동읍성의 축조구간은 면천읍성과 같은 60척 4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선 전기 읍성이나 진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²³⁾은 아니며 적어도 하동읍성의 축조구간 길이가 30m인 것이다. 또한 하동읍성의 총연장 길이가 1.4km를 전제로 하면 총 47개 구간으로 나누어지고 하동읍성의 축조에 동원된 구역인의 수도 세종 3년에 都城修築都監이 啓하기를, 도성을 수축하는데 토성은 海尺當 각 15명씩의 인력이 소요되며, 석성은 海尺當 각 5명씩의 인력이 소요된다는 기사를 참고한다면 하동읍성의 둘레 2,943척을 기준으로 할 때 적게는 14,700명에서 많게는 18,000명가량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9, 『泗川邑城』, 118쪽.

면천읍성 서치성의 북측벽에는 刻字가 있는 성석이 2매가 있었으나 1매는 최근 유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기단부를 이루고 있는 1매에는 “己未年 沃川始面 長六十尺 四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세종 21년 옥천에서 동원된 부역민이 이 성석에서부터 60촌 4촌의 길이를 축조하였음을 밝혀 주고 있다.

23) 전라남도 영광 법성진성에서 확인된 刻字에는 함평 70척, 광양 80척 등 각각의 축성구간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축성 인력의 동원과 지형의 요건이 고려된 것으로 면천읍성 및 하동읍성의 30m(60척 4촌)와는 차이가 있다.

IV.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 비교

현재까지 경남지역에서 지표조사를 포함하여 발굴 조사된 조선시대 읍성은 17개소²⁴⁾에 이르고 있으며 발굴조사에서 구조가 밝혀진 치성은 영진성에서 확인된 것을 포함하여 40개소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축조연대가 확인되는 읍성의 부대시설 가운데 그 구조와 규모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서열을 정하고 아울러 치성의 속성들이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지, 시간성을 반영하는 속성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의 조합이 유형이나 형식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표 2는 『조선왕조실록』 문종조 정분의 계문에서 仍舊로 표현된 읍성들의 현황을 목록화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도면 4를 작성하였다. 표 1·3은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에서 확인되는 치성들을, 표 4는 영남지방의 내륙읍성에서 확인되는 치성들을, 표 5는 조선시대 하삼도 가운데 충청·전라도 지역에서 조사된 읍성들의 치성을, 표 6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의 치성들을 각각 목록화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그림 1~5를 작성하였다.

24) 최근까지 조사 보고된 경남지역의 읍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慶南文化財研究院, 2003, 『東萊邑城址 試掘調査結果報告書』; 2003, 『釜山 望美洞 共同住宅建設豫想敷地內 試掘調査結果報告書』; 2004, 『統營城址 西鋪樓 發掘調査結果報告書』; 2005, 『昌原邑城 精密地表調査 및 邑城 復原에 關한 研究』; 2005, 『東萊邑城址 試掘調査結果報告書』; 2006, 『金海邑城 北門 造成事業敷地內 發掘調査結果報告書』; 國立晉州博物館, 1997, 『晉州城 轟石樓 外廓 試掘調査 報告書』; 機張郡, 2002, 『機張邑城 整備 基本計劃』; 羅東旭, 1999, 『金海 東上洞 消防道路 區間內 金海邑城 試掘調査』, 釜山市立博物館; 密陽大學校博物館, 2002, 『密陽邑城』; 東義大學校博物館, 2006, 『釜山 望美洞 東萊古邑城』; 북천박물관, 2001, 『東萊邑城址』; 동아대학교박물관, 1983, 『蔚山倭城·兵營城址』; 1991, 『巨濟古縣城址』; 1991, 『馬山合浦城址基礎調査報告書』; 2003, 『彥陽邑城 綜合整備復元을 위한 學術調査報告書』; 2006, 『固城邑城址』; 1998, 『靈山邑城址地表面調査報告書』;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1, 『鎭海 熊川邑城』; 2004, 『河東邑城』 I ; 2006, 『河東邑城』 II; 2006, 『古縣邑城』; 2006, 『合浦城址』; 昌原文化財研究所, 1997, 『蔚山兵營城綜合整備 計劃』; 崔憲燮·李日甲, 2002, 『固城邑城地表面調査報告書』; 동아시아文化財研究院, 2006, 『泗川邑城 發掘調査指導委員會資料輯』.

표 2. 『文宗實錄』에 記錄된 仍舊邑城 現況

	읍성명	성둘레(尺)	높이(尺)	여장높이(尺)	치성	성문	여장수	井/池/泉
경상도	경주읍성	4,075	11.6	1.4	26	4	1,155	井83
	김해읍성	4,418	13	2	20	4	931	井28
	창원읍성	3,775	12.6	1.8	12	4	635	井7
	곤양읍성	3,765	9	2	13	3	514	井3/泉3
	기장읍성	1,521	11	2	6	3	383	
	동래읍성	3,000	13	2	12	4	513	井4
	고성읍성	3,011	12	2	12	3	575	泉5/池1
	남해읍성	2,806	12	3	13	3	553	泉3/小渠1
	하동읍성	2,943	8	3	11	3	588	泉5/池1
충청도	비인읍성	1,933.8	11	3	5	3	423	井3
	남포읍성	2,476	12	3	5	3	377	泉2
	보령읍성	2,109	12	2	8	3	412	井3
	해미읍성	3,352	12	3	18	4	688	泉3
	당진읍성	2,809	9	2	8	3	468	井3
	면천읍성	3,225	11	3	7	3	56	井3
	홍주읍성	4,856	11	3	24	4	608	井2/川1
전라도	순천읍성	3,383	12	3	6	4	514	井6/池8
	낙안읍성	2,865	9.5	2.5	12	3	420	井2/池1
	보성읍성	3,000	8	2	0	2	539	井2/池1/泉2
	영암읍성	4,369	12	3	6	3	639	泉2
	광양읍성	1,830	7.6	3	9	3	374	
	홍양읍성	3,500	12	3	11	2	574	井5
	무안읍성	2,700	11	3	7	3	427	井2/泉2/池1
	강진읍성	2,225	10.8	2.4	8	4	443	井4
	만경읍성	2,820	12	3	4	3	453	井3
	임피읍성	3,095	10	3	4	3	439	井7
	함열읍성	3,485	11	1.5~2	16	2	550	井2/池1

표 2는 문종 1년 하삼도 도체찰사 정분이 하삼도의 읍성을 순시하고 그 현황을 문종에게 상소한 내용을 목록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仍舊로 확인된 읍성에 한하여 성 둘레 / 치성 수를 비교하여 보면, 경상도 지역은 기장읍성을 제외하고 연해와 내륙에 축조된 읍성의 치성 수가 10개소 이상인 반면, 전라도 지역은 경

상도와 인접하거나 남해안 지역에 위치한 낙안·광양·홍양 읍성 등 전라좌수영 관할 읍성은 치성수가 10개소 내외로 축조되어 있다.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해미 읍성과 홍주읍성만이 10개소 이상이고 대부분 5~7개소 내외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성 둘레 2,000척 이상 3,000척 내외의 충청·경상·전라도의 읍성 가운데 유독 경상도 읍성의 치성 수가 10개소 이상으로 대규모의 치성이 축조되고 있으며 전라도의 경우에도 경상도 남해안 연해지역에 인접한 전라도 연해읍성의 일부만이 역시 10개소 내외의 치성이 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역이 왜구에 대비한 최일선 방어처이자 왜구 최초 到泊處로 국방상의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해안 방어 전술의 일환으로 이곳의 읍성의 치성 수가 증가한 것이라 하겠다(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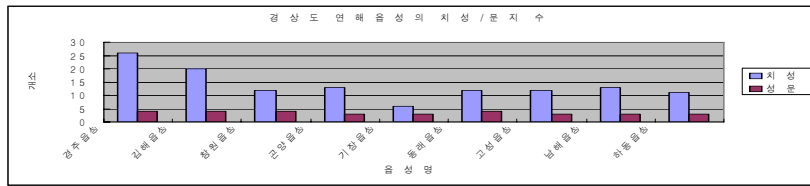


그림 1. 경상도 연해읍성의 치성 / 문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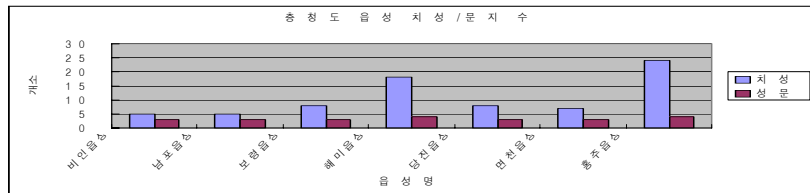


그림 2. 충청도 읍성의 치성 / 문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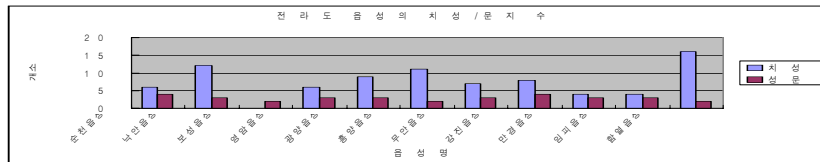


그림 3. 전라도 읍성의 치성 / 문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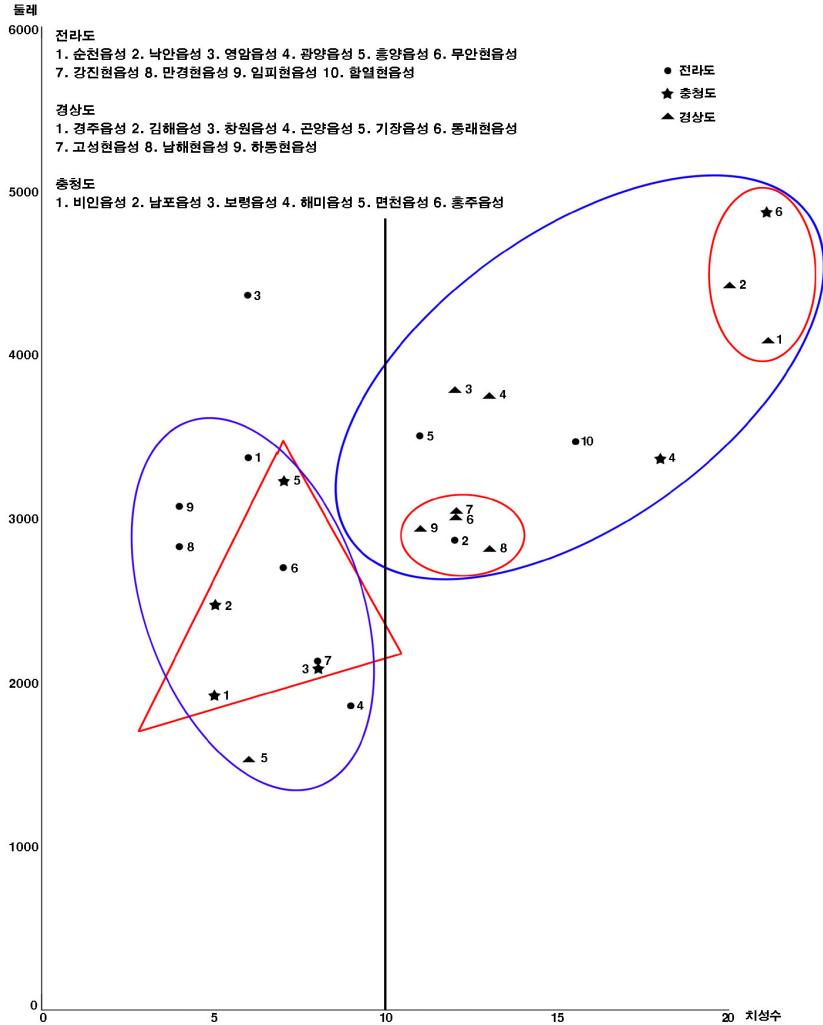


그림 4. 『文宗實錄』에 기록된 仍舊邑城 현황(둘레 / 치성 수)

또한 그림 4에서는 경상도의 경우 경주, 김해, 창원 등의 대도호부와 병영이 설치된 상위 행정단위 및 군대의 상급 지휘체계의 지휘관이 위치하는 곳에 축조된 읍성이 하위 행정단위의 읍성에 비해 치성 수가 1.5배 내지 2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읍성은 또한 모두 평지 방향의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영진성 등 병마절도사영과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된 읍성의 경우는 평지성이나 방향의 평면플랜으로 축조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평지 방향성이 평산성형 읍성에 비해 치성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로 충청도의 경우 홍주목이 설치된 홍주읍성과 충청도 병마절도

사영이 설치된 해미읍성이 여타의 충청도 읍성의 치성 수에 비해 1.5~2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행정단위가 상위일수록 치성이 증가하며 또한 병마절도사영 및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된 읍성일수록 치성의 숫자가 일반 군현에 축조된 읍성에 비해 많은 숫자로 계획되어 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²⁵⁾ 또한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경우 성 둘레가 3,000척 내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충청·전라도 읍성의 경우는 2,000척 이하에서 4,000척 이상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상도 연해읍성의 경우 성 둘레가 3,000척 전후로 비슷한 둘레를 가진 충청·전라도의 읍성보다 치성의 숫자가 1.5~2배가량 많으며 이러한 것은 치성의 설치 숫자가 단지 성 둘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상의 요충에 위치한 군사상의 중요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4 참조.

표 3.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 현황

읍성명	치성 수	평면 형태	너비	길이	잔존 높이	비고	
고현읍성	6	방대형	7.4m	10.2m	2.55m	덧대어 축조	
동래읍성	12	정방형	4.2m	4.2m	1.8m	덧대어 축조	
		정방형	4.2m	4.8m	1.1m	덧대어 축조	
		정방형	4.4m	4.8m	1.2m	덧대어 축조	
웅천읍성	6	방대형	5.5m	7.6m	4.0m	성우로서 하부에 비해 상부는 잔돌로 축조	
		장방형	8.4m	5.5m	4.5m	훼손으로 인해 상부의 평면이 반원형을 띠	
사천읍성	15	방대형	8.2m	9.4m			
		방대형	7.2m	8.3m	1.4m		
곤양읍성	18	장방형	14.7m	5.3m	2.7m	동문에서 북쪽으로 100m 이격	
기장읍성	6	방대형	6.9m	8.7m		대석 2단 정도만 잔존	
장기읍성	12	제 1치성	장방형	6.2m	5.1m	1.9m	전면은 무너지고 지대석 일부만 확인
		제 2치성	방대형	6.0m	9.0m	2.7m	성벽이 무너져 전면 지대석도 확인 못함
		제 3치성	방대형	7.2m	10.6m	2.3m	전면은 무너지고 지대석 일부만 확인
		제 4치성	방대형	8.0m	10.3m	3.7m	일부 미석까지 남아 있음
		제 5치성	정방형	8.5m	8.2m	2.8m	좌측벽이 일부 남아 있음
		제 6치성	방대형	6.2m	7.2m	·	전면이 무너져서 길이는 확실치 않음
		제 7치성	방대형	7.0m	9.8m	2.6m	우측벽이 일부 남아 있음
		제 8치성	방대형	6.7m	9.8m	1.0m	무너져서 위치만 알 수 있음
		제 9치성	방대형	6.0m	7.0m	·	무너져서 위치만 알 수 있음
		제 10치성	방대형	4.2m	6.4m	0.8m	무너져서 위치만 알 수 있음
		제 11치성	방대형	6.6m	9.5m	1.5m	전면은 무너지고 측벽 일부만 남아 있음
		제 12치성	방대형	7.5m	10.3m	3.7m	좌측벽이 남아 있어서 정확한 길이를 측정

²⁵⁾ 심정보는 해미읍성의 경우 계획된 18개소의 치성수치와 달리 실제로 2개소의 치성이 축조되어 있는 것이 충청병마절도사영의 이동으로 인해 군사적 가치의 상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울러 홍주읍성의 경우도 내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 4. 내륙읍성의 치성 현황

읍성명		치성 수	평면 형태	너비	길이	잔존 높이	비고
연양 읍성	제8치성	12	방대형	7.15m	8.0m	·	서문지 출입부 보호를 위한 적대.
	제9치성		방대형	7.2m	9.44m	·	체성과 동시에 축조.
	제10치성		방대형	7.0m	9.7m	·	성우로 판석으로 기저부를 보강하고 있음.
	제11치성		방대형	8.0m	10.45m	4.85m	체성과 동시에 축조 조사된 것 중 가장 큼.
영산 읍성	북동치성	6	방대형	7.2m	8.2m	1.8m	체성과 동시에 축조.
	북서치성		장방형	9.3m	6.7m	1.2m	체성과 동시에 축조.
청도 읍성	동치성	6	장방형	11.8m	8.5m	1.3m	동문지에서 남쪽으로 30m 이격.
	북치성		방대형	8.1m	8.7m	1.3m	북문에서 서쪽으로 90m 이격.
경주 읍성	동남 제1치성	26	방대형	7.5m	9.3m	3.5~4m	체성 접합부는 너비 6.4m.

표 5. 기타 읍성의 치성 현황

읍성명		치성 수	평면 형태	너비		길이		잔존 높이	비고
				전면	연접부	좌	우		
면천 읍성	서치성	7	방대형	8.0m	7.3m	9.3m	9.8m	2.3m	서치성 북측벽에 각석 2매 있음.
	서북치성		방대형	7.7m	8.0m	9.7m	10.5m		
	북치성		방대형	8.0m	8.2m	9.3m	9.3m	1.8m	내탁부는 25°의 경사도를 유지.
	동북치성		방대형	7.0m	7.2m	9.3m	9.3m	2.0m	
남포 읍성	동남치성	4(5)	장방형	10.0m		6.7m	4.3m	3.6m	동벽과 남벽의 성우 동시 축조.
	서남치성		장방형	6.7m	6.1m	5.8m	4.2m	3.0m	서벽과 남벽의 성우 동시 축조.
	서북치성		장방형	8.5m	6.7m	6.2m	4.2m		현재 복원되어 있음.
	동북치성		장방형	9.5m	7.4m	6.7m	7.0m	4.2m	좌우의 높이 차이가 있음.
홍주 읍성	동남성우	2~8	정방형	6.0m		6.0m			문헌기록에 치성이 2개소 내지 8개소로 기록.
보령 읍성	남벽치성	8	정방형	4.2m		3.6m		2~3단	남문지 동쪽 34.3m 거리에 위치.
	서벽치성		방대형	5.3m		7.4m			적대
해미 읍성	남치성	2	정방형	7.5m		7.9m			2間×3間的 長鋪를 설치.
	서남치성		정방형	7.6m		7.7m			1間×3間的 長鋪를 설치.
진도 읍성	제3치성	16	반원형	10.0m		8.0m			평탄 대지에 위치, 성벽 중간. 동시 축조.
	제6치성		장방형	6.5m		5.5m			능선 정상부, 회절부, 동시 축조.
	제7치성		반원형	7.5m		6.5m			능선 경사면에 위치, 성벽 중간. 체성에 덧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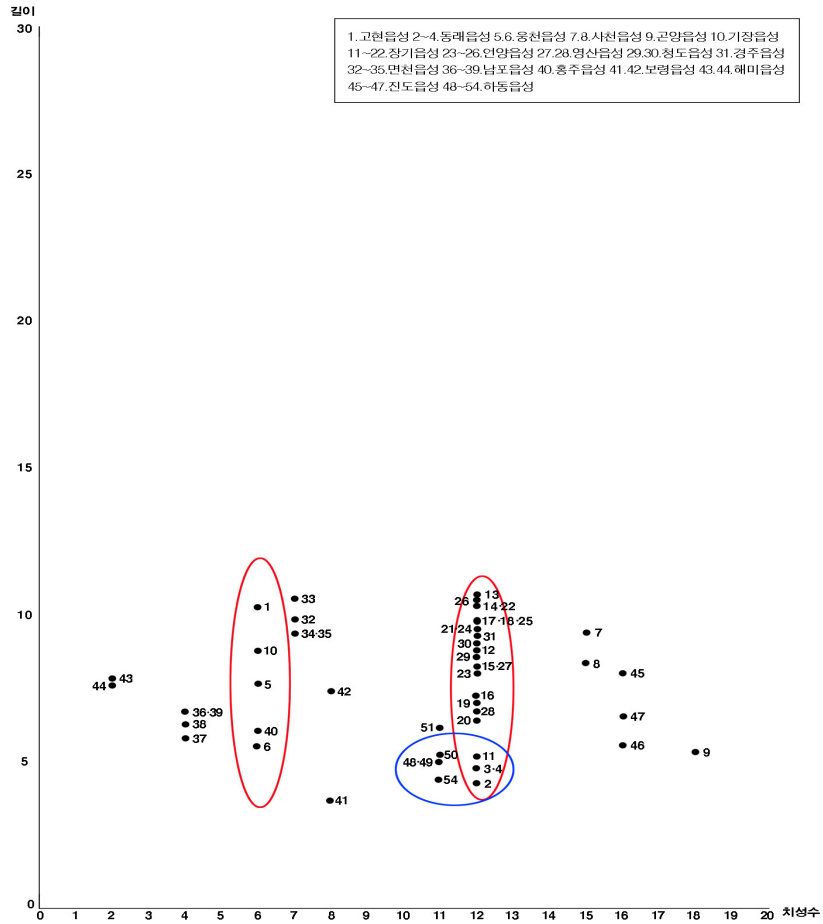


그림 5. 최근 조사된 읍성의 치성 길이 / 치성 수

다음으로 그림 5는 최근까지 조사된 총 54개소 연해읍성의 치성의 길이와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조선시대 읍성에 설치되는 치성의 기본적인 수치는 6개소와 12개소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즉 읍성의 네 성우와 주요 문지의 좌우에 한 개소의 적대를 갖춘 6개소의 형태와 네 성우와 각 문지 좌우에 각각 2개소가 설치된 12개소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영진보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경우도 6개소와 12개소의 치성 축조 양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조사된 54개소의 치성 가운데 12개소를 초과하는 읍성의 경우 역시 모두 남해안지역에 축조된 연해읍성들로서 사천읍성(15), 곤양읍성(18), 진도읍성(16) 등이며 하동읍성은 11개소로 역시 12개소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6개소와 12개소의 치성 설치 양상은 영남 내륙지방에 축조된 읍성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충청도의 경우는 6개소의 내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남해안지역에 비해 왜구의 직접적인 도발의 빈도가 다소 낮은 지역적인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해안지역의 연해읍성에 12개소 이상의 많은 치성이 설치되는 것은 왜구의 침구로부터 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조선 전기의 하삼도에 집중된 읍성 축성사업이 경상도 연해 즉 남해안 연해읍성의 축조에 가장 중점을 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그림 6·7은 최근까지 고고학적 조사로 확인된 남해안지역 연해읍성과 내륙읍성 및 영진성의 치성의 속성 가운데 길이 / 너비를 나누어 도출된 수치를 대입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길이 / 너비를 나누어 도출된 수치 가운데 0.79~0.5 내외를 제 1 형식, 0.8~1.2를 제 2 형식, 1.21~1.5 이상을 제 3 형식으로 나누고 제 1 형식을 방대형, 제 2 형식을 정방형, 제 3 형식을 장방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그림 7에 의하면 정방형의 평면플랜이 가장 오랫동안 축조되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방대형이, 마지막으로 장방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종 15년(1433)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와 15세기 이후 16세기에는 치성의 평면플랜이 정방형과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방대형의 형태는 쇠퇴하거나 소멸되고 있다. 또한 조선 전기 병영과 읍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내상성인 경상도의 함포·울산, 충청도의 해미·보령 읍성의 경우는 현재 확인되는 치성의 평면플랜이 정방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기 전후에 축조되는 수군 영진보성의 경우에도 정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각 치성의 규모에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길이 : 너비의 비율이 1 : 0.8~1.2의 정방형을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방형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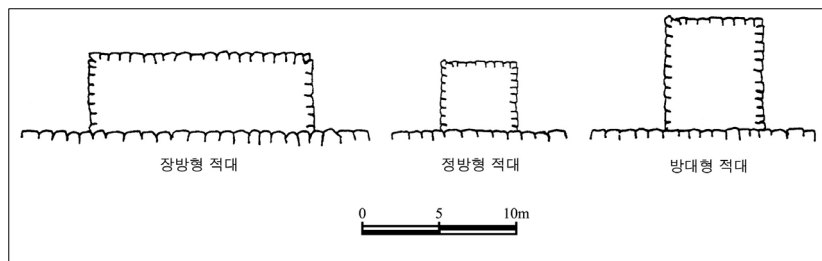


그림 6. 치성의 평면형태

또한 이 도면에서는 세종 15년(1433)에 정해진 치성의 축조 규칙인 15척×20척(7.0m×9.4m)의 환산치인 0.74를 방대형의 기준으로 삼고 수치 1을 정방형의 기준으로 설정한 결과 세종 15년(1433) 이후 치성 축조 규칙이 반영되기 전에 방대형으로 축조된 치성들이 남해안 연해지역에서는 기장읍성에서 확인되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보령읍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세종 15년 이전에는 길이 : 너비의 비율이 1 : 1 전후인 정방형이 오히려 훨씬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읍성은 함포성지, 울산 병영성, 해미읍성, 홍주읍성 등 공통적으로 병영과 읍치가 공존하는 내상성이거나 행정구역 단위 가운데 상위 단위의 고을에 설치된 읍성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15년(1433) 곤남성 치성으로 인한 치성 축조 규칙의 적용 이후에는 방대형의 치성이 축조되고 있지만 정방형과 장방형의 치성도 계속해서 축조되고 있다. 더구나 장방형 치성의 경우에는 방대형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대형의 축조를 규칙화한 축성방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세종조와 문종·단종조에서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8에서는 동일한 읍성에서도 길이와 너비가 다른 다양한 평면 플랜을 가진 치성들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존에는 용적의 차이와 축성 연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표 3에서 확인되는 치성의 양상은 다소 다르게 확인되고 있다. 즉 하동읍성의 경우에는 방대형이 2개소, 장방형이 4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기읍성의 경우는 12개의 치성 가운데 정방형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방대형으로 축조되고 있다. 이것은 체성부와 동시에 축조되고 그 거리가 서로 인접한 성우이면서 평면플랜이 장방형과 방대형으로 나뉘지고 있는 영산읍성의 경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제주읍성의 경우에도 각각 치성간 거리가 74m와 69m로 인접하면서 동시 축조된 치성이 7.1m×12.8m, 11.3m×11.0m, 8.9m×11.0m로 확인되고 있고²⁶⁾ 진도읍성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방대형과 정방형, 장방형이 적절히 혼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치성간의 상호보완을 위한 것으로 『民堡議』 堡垣의 제도 가운데 角臺編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남해안 연해읍성을 비롯한 조선시대 읍성의 치성들이 정방형, 장방형, 방대형 등 다양한 형태가 혼용되는 이유라고 하겠다²⁷⁾ 그림 7~11 참조.

²⁶⁾ 현지답사를 통해 실견하고 평면플랜을 확인하였다.

²⁷⁾ 『民堡議』 堡垣의 제도 중 角臺編에 “여러 모서리 가운데 甲角이 가장 정사각형이고 치우치게 적군의 공격을 받으며 乙角은 마땅히 길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모서리가 함께 짧으면 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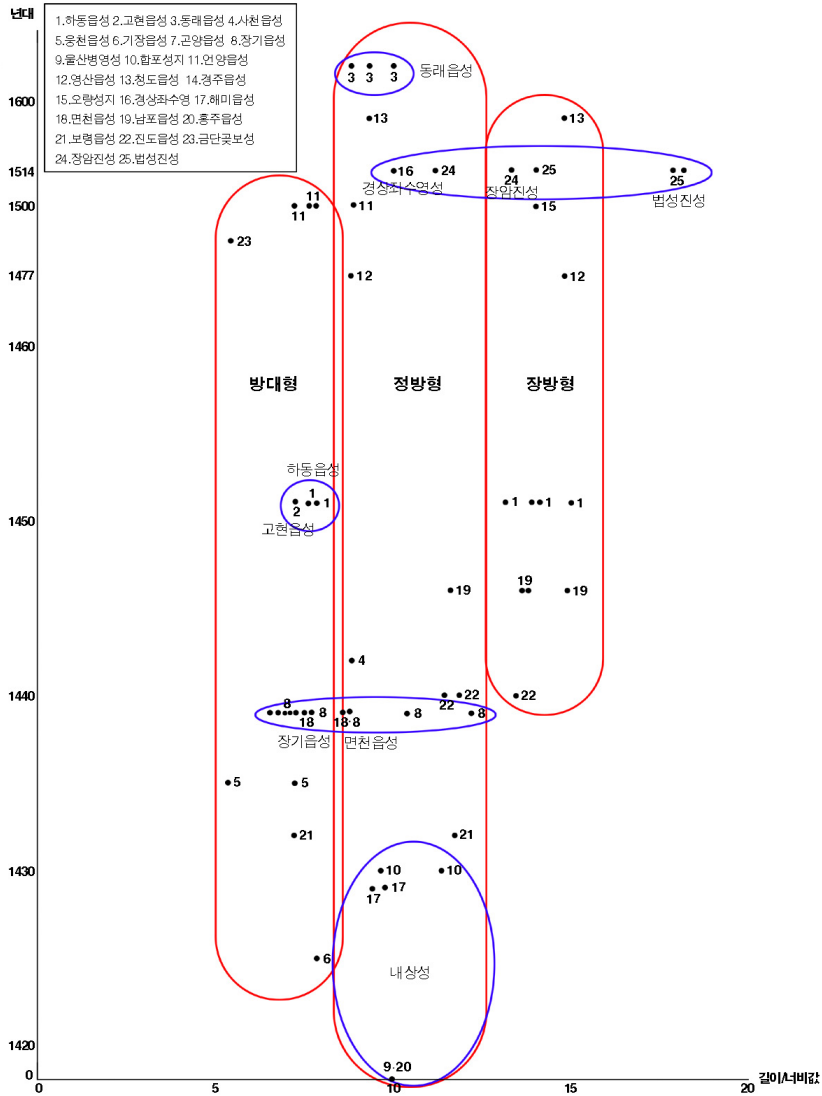


그림 7. 연해읍성 치성의 시기 : 길이 / 너비값

본성만 구원한다. 적군이 만일 무면에 붙으면 갑자기 위태롭다. 기면을 좇아 탄알을 쏘면 곧 무면을 구원하니, 읍각이 길면 또한 좋지 않은가.”라고 기술되어 있어 치성간의 너비와 길이를 조절하여 상호보완토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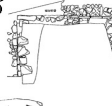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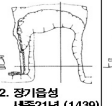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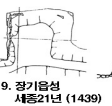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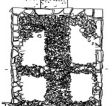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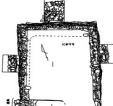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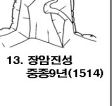

평면형태 년대	방대형	정방형	장방형
1420			
1430			
1440			
1450			
1460			
1470			
1480			
1500			
1600			
			
			

그림 8. 연해읍성·영진보성의 치성 평면플랜 분류표

다음으로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 연해읍성의 축조 시에는 너비의 비해서 길이는 5m라는 규식이 비교적 일정하게 지켜지며 축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은 태종 17년에 축조된 하동읍성에서 확인된 7개소의 치성 가운데 5개소의 치성의 길이가 5m 전후로 축조되어 있으며 문종 원년 정분의 계문에 나타나듯 연해읍성들이 규식에 맞춰 쌓은 것이 없다는 계문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²⁸⁾ 즉 문종 원년의 정분의 계문에 나타나 는 규정된 축조규식은 세종 15년(1433) 이후에 적용된 적대 축조 규식이나 세종

20년(1438)에 頒降되는 築城新圖로서 정분의 계문 내용에 이러한 규식에 의거하여 쌓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식은 세종조와 문종·단종조의 일부 기간에만 한정되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로 하동읍성의 치성들은 문종 원년(1451) 당시에도 치성이 4개소만이 쌓여 있었으며 이것도 모두 규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단종 즉위년인 1452년에는 아직도 치성이 다 축조되지 않다고 해서 처음 계획한 11개의 치성이 이때에도 아직 畢築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동읍성의 조사에서 확인된 치성 가운데 제 5·6 치성의 경우에는 초축 시에는 길이가 5.1m이고 증축하여 너비와 길이가 각각 7.4m×9.4m, 7.4m×9.8m로 세종 15년에 정해진 15척×20척의 규식에 일치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치성들은 문종 원년 정분의 계문 이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치성들의 너비×길이(표 1 참조)를 확인하면 초축 당시 하동읍성 치성의 너비는 대략 7m 내외이고 길이는 5m로 계획되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읍성에서도 길이 5m의 치성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종 15년(1433)에 치성 축조 규식을 만들게 된 곧남성의 치성 역시도 너비는 10m 이상으로 넓지만 길이는 5m이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치성의 평면 플랜 축조 시 너비는 다소 다양한 형태로 축조되었지만 길이는 5m의 규식으로 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치성 길이 5m의 규식은 성종조와 중종조에 축조되는 영진보성의 치성에서도 일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7세기에 축조되는 동래 후기 읍성의 치성에서도 길이가 5m로 확인되고 있어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의 길이는 5m로 조선시대 전 기간 내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그림 7~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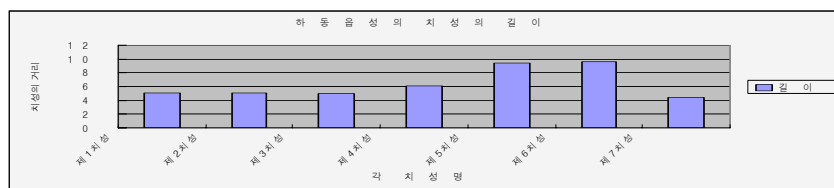


그림 9. 하동읍성 치성의 길이

28) 『文宗實錄』卷9, 元年 9月 庚子; 『愛日堂先生實記續本』卷上, 「請慶尙忠淸各官城子尺量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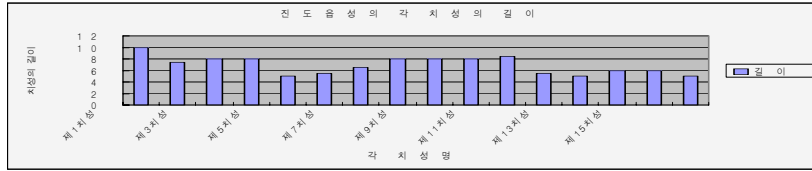


그림 10. 진도읍성 치성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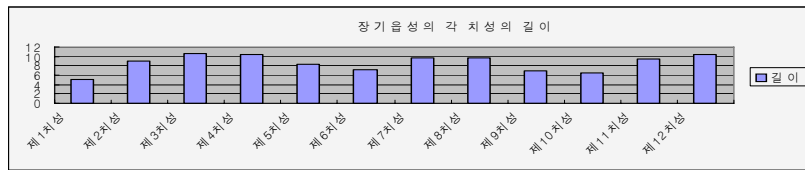


그림 11. 장기읍성 치성의 길이

V. 영진보성 치성과의 비교

남해안지역의 연해읍성과 더불어 남해안을 방어하던 영진보성에도 역시 치성들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진보성들은 조선의 개국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지만 실제로 육군의 병영성의 경우는 조선 태종 17년(1417)을 전후한 시기에 축성되고 반면 남해안의 대부분의 영진보성인 수군진성들의 경우는 성종조에서 중종조에 걸쳐 일시에 축조되고 있어 그 축성양상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세종·문종·단종조에 축조되는 남해안지역 연해읍성과의 축조수법과 구조, 부대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상호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까지 조사된 영진보성들의 치성의 양상을 수치화하여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치성과의 상관성과 상이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조사된 영진보성 치성의 평면플랜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2에서 확인되는 양상처럼 합포성지의 경우 현재 복원된 치성의 너비가 7m, 길이는 7.2m이고, 금번 시굴조사에 확인된 치성의 너비는 8m, 길이는 6.3m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것은 세종 15년에 세운 규식에 따라 치성을 설치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사된 2개의 치성 가운데 길이 : 너비가 1 : 1의 정방형을 띠는 것이 현재 복원된 치성이고 금번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치성은 정확한 길이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대략 복원된 치성의 길이와 동일하다고 볼 때 길이 : 너비가 역시 1 : 1.1로서 정방형으로 축조되고 있다.

이것은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여타의 읍성에서 확인된 치성의 평면플랜의 경우 방대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임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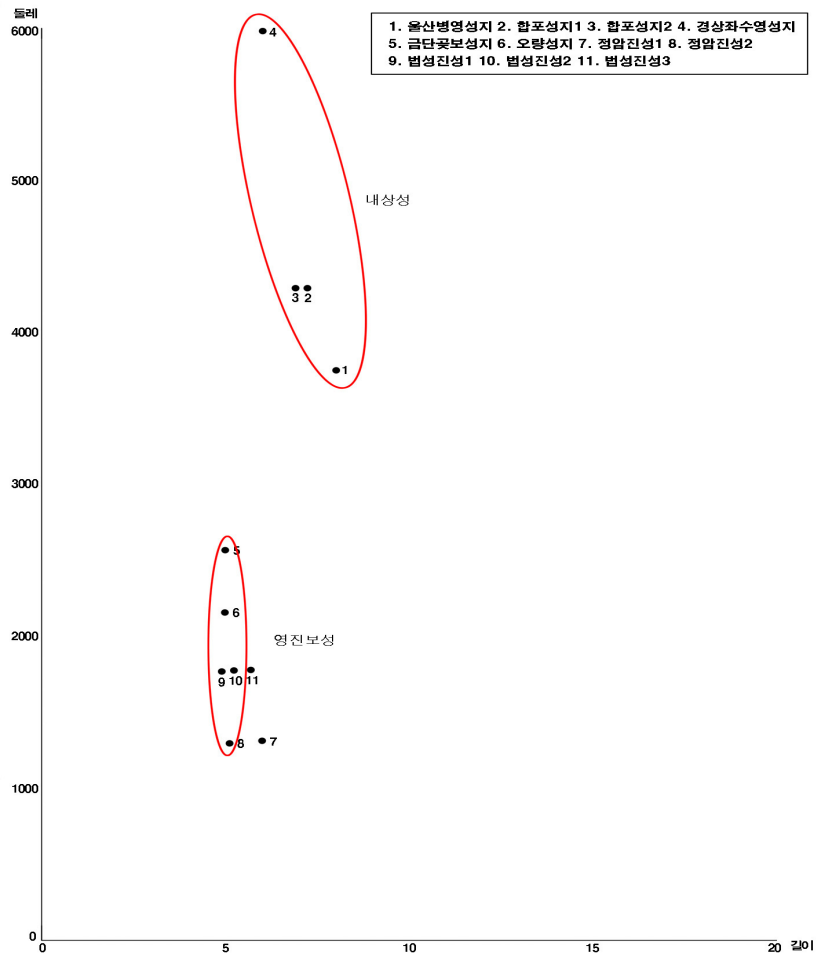


그림 12. 영진보성의 성 돌레 / 치성 길이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에 있어서 울산 병영성과 합포성지와 같은 육군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된 내상성의 경우에는 지휘체계상 하위 단위 부대가 설치된 진보성에 비해 치성의 길이가 더 길게 축조되어 있다. 또한 수군절도사영성보다도 길이에 있어 더 길게 축조되어 있다. 즉 육군병영성과 수군영성은 너비의 경우 7~8m로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영진보성의 치성 가운데 전체 55%가량으로 절반을 넘기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대략 6~10m까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길이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인 울산 병영성과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영인 합포성지, 경상좌수영성에서 확인되는 치성은 길이가 7m 이상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진보성의 경우는 5m 내외의 길이로 축조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15세기에서 16세기로 접어드는 성종과 중종조에 축조된 영진보성의 길이가 5m 내외로 세종 15년 이후 연해읍성의 치성 축조 시 규식화된 20척(9.4m)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영진보성의 치성 축조에는 세종조의 규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기의 연해읍성과 구별되는 영진보성 치성의 평면플랜이 조선 후기에 축조되는 후기 동래읍성의 치성의 길이와도 일치하고 있고, 또한 조선 전기에 축조된 하동읍성과 장기읍성에서 확인되는 치성의 길이도 역시 5m 임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전기부터 적용된 치성의 축조 시의 길이는 5m로 이러한 규식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기존에는 지형적인 조건에 기인하여 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가감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까지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영진보성의 치성의 경우에는 지형적인 조건이나 성 둘레에 따라 너비와 길이가 정해져 축조되기도 다 각 鎭의 서열에 따라 상위 지휘체계의 鎭城일 수록 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더 크게 축조되었다고 하겠다. 즉 병영이 설치되고 병마절도사와 절제사가 위치하는 병영성의 경우는 조선 전기 鎭管體制 의해 해당지역의 지방관을 겸임하는 행정치소인 읍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춘 영진성의 경우에는 연해읍성의 치성의 규모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육군과 수군이 주둔하는 진보성은 일정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표 6. 최근까지 조사된 영진보성의 치성 현황

읍성명	성둘레 (尺)	치성 수	평면 형태	너비	길이	잔존 높이	비고	
울산병영성지	3,732	21	정방형	8m	8m	1m	덧대어 축조.	
합포성지	4,291	9개 이상	정방형 장방형	7m 8m	7.2m 7m	· 1m	덧대어 축조. 지대석을 배치하지 않음.	
경상좌수영성	9,198	6	정방형	6m	6m	1m	추정 서문지 기준 남쪽으로 62m 이격 대부분 훼손되어 정확한 양상이 확 인 안됨.	
금단곶보성지	2,568		정방형	2.7m	5m			
오량성지	2,150	8	장방형	7m	5m		동시 축조.	
장암 진성	북동치	1,311	2	장방형	8m	6m	3.5m	확률 확인.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성우.
	남동치			정방형	5.8m	5.2m	2.4m	남벽과 동벽이 만나는 성우.
범성 진성	북벽치	1,688	3	타원형	10m	5.5m	2m	
	서벽1치			반원형	9m	5m	2.2m	
	서벽2치			반원형	7m	5m	1.5m	다른 치와 달리 내부가 채워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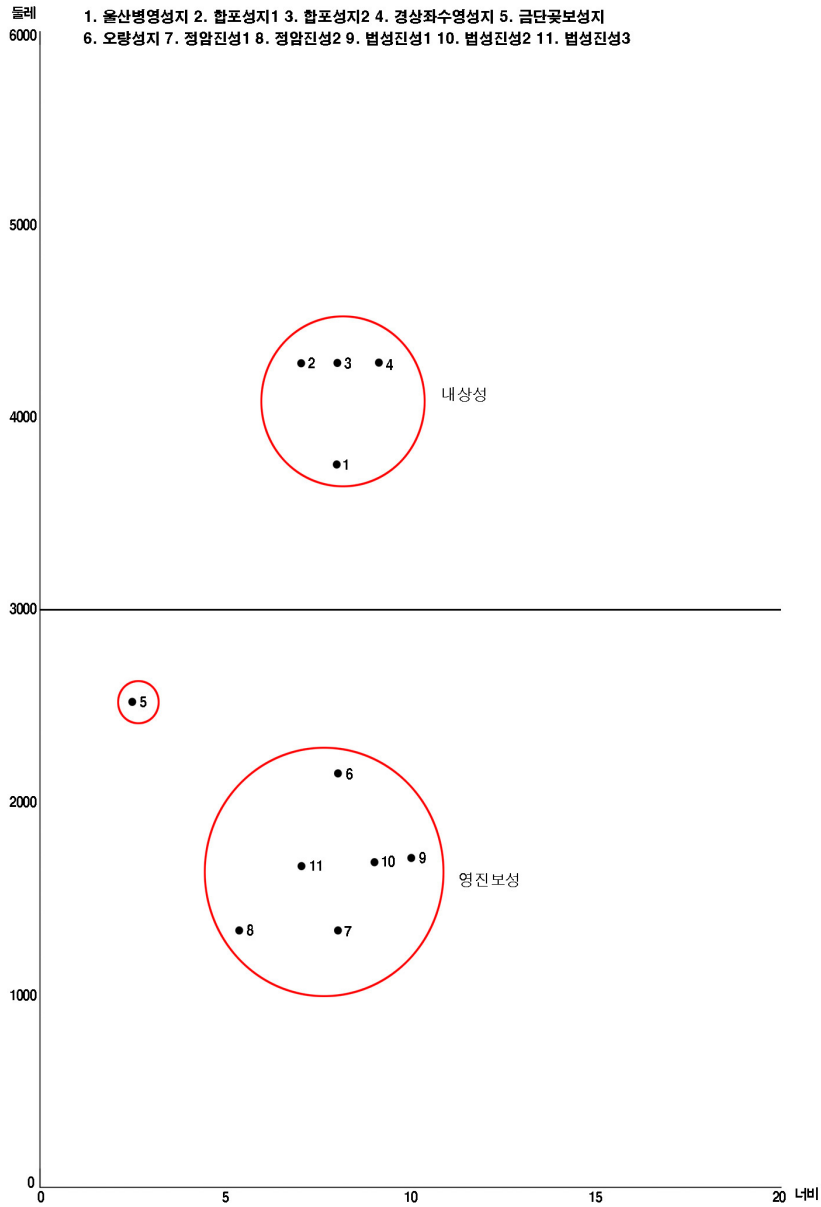


그림 13. 영진보성의 성 둘레 / 치성 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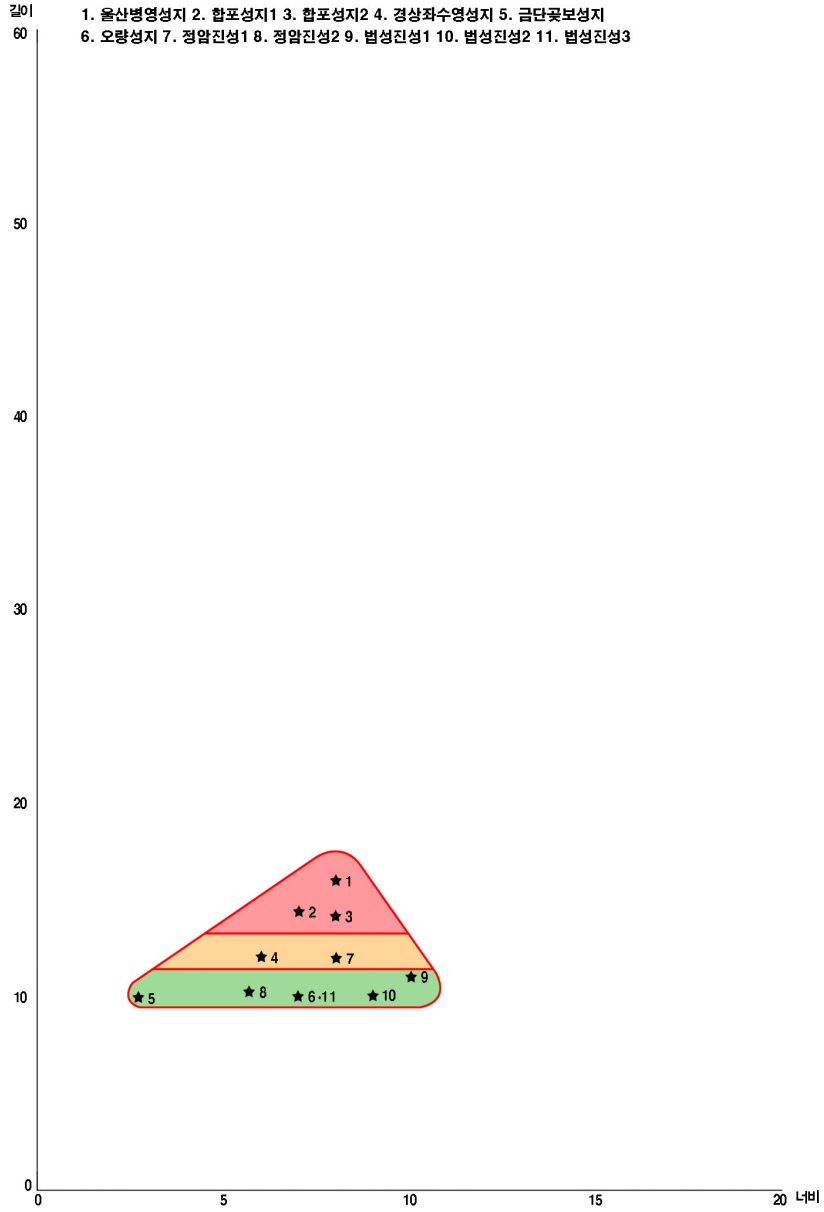


그림 14. 영진보성 치성 길이 / 너비

또한 경상도 연해 영진성의 치성이 경상도 내륙은 물론 전라도·충청도의 영진보성보다는 그 규모가 더 크게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연해읍성의 치성의 현황과 양상에서 파악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성 둘레 2,000척 이상 3,000척 내외의 충청·경상·전라도의 읍성 가운데 경상도의 연해읍성은 10개소 이상의 치성이 축조되고 있으며 전라도의 경우에도 경상도 남해안 연해지역에 인접한 전라도 연해읍성의 일부만이 역시 10개소 내외의 치성이 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지역이 왜구에 대비한 최일선 방어처이자 왜구 최초 도박처에 해당하는 곳으로 국방상의 중요한 요충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해안 방어 전술의 일환으로 이곳에는 읍성의 치성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경상도의 경우 경주, 김해, 창원 등의 대도호부와 병영이 설치된 상위 행정 단위 및 군대의 상급 지휘체계의 지휘관이 위치하는 곳에 축조된 읍성이 하위 행정단위의 읍성에 비해 치성수가 1.5배 내지 2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읍성은 또한 모두 평지 방형의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병영과 수영이 설치된 읍성의 경우는 평지성이지만 방형의 평면플랜으로 축조되고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평지 방형성이 평산성형 읍성에 비해 치성의 개수가 많은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행정단위가 상위일수록 치성이 증가하며 또한 병영 및 수영이 설치된 읍성일수록 치성의 숫자가 일반 군현에 축조된 읍성 치성에 비해 많은 숫자로 계획되어 축조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읍성에 설치되는 치성의 기본적인 수치는 6개소와 12개소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즉 읍성의 네 성우와 주요 문지의 좌우 적대를 갖춘 6개소의 형태와 네 성우와 각 문지 좌우에 각각 2개소가 설치된 12개소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영진보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6개소와 12개소의 치성 설치 양상은 영남 내륙지방에 축조된 읍성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왜구의 직접적인 도발이 빈번한 남해안지역의 연해읍성에 12개소 이상의 많은 치성이 설치되는 것은 왜구의 침구로부터 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조선 전기의 하삼도에 집중된 읍성 축성 사업이 경상도 연해 즉 남해안 연해읍성의 축조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남해안지역 연해읍성과 내륙읍성 및 영진성의 치성의 축성 가운데 길이 / 너비를 나누어 도출된 수치 가운데 0.5~0.79 내외를 제 1 형식, 0.8~1.2를 제 2 형식, 1.21~1.5 이상을 제 3 형식으로 나누고 제 1 형식을 방대형, 제 2 형식을 정방형, 제 3 형식을 장방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가운데 정방형의 평면플랜이 가장 오랜 기간 축조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대형이, 마지막으로 장방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종 15년(1433)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길이 : 너비의 비율이 1 : 1 전후인 정방형이 오히려 훨씬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읍성은 함포성지, 울산 병영성, 해미읍성, 홍주읍성 등으로서 공통적으로 병영과 읍치가 공존하는 내상성이거나 행정구역 단위 가운데 상급 단위의 고을에 설치된 읍성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5세기 이후 16세기를 거치면서 치성의 평면플랜은 정방형과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방대형의 형태는 쇠퇴하거나 소멸되고 있다. 또한 15세기 전후에 축조되는 수군 영진보성의 경우에도 정방형이 주류를 이루어 각 치성의 규모에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길이 : 너비의 비율이 1 : 0.8~1.2의 정방형을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방형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세종 15년(1433) 곤남성 치성으로 인한 치성 축조 규칙의 적용 이후에는 방대형의 치성이 축조되고 있지만 정방형과 장방형의 치성도 계속해서 축조되고 있다. 더구나 장방형 치성의 경우에는 방대형보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방대형의 축조를 규칙화한 축성 방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읍성에서도 길이와 너비가 다른 다양한 평면플랜을 가진 치성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용적의 차이와 축성연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치성간의 상호보완을 위한 것으로 『民堡議』 堡垣의 제도 가운데 角臺編에 기술된 “치성 간에 길이의 차이를 두어 서로 구원토록 한다.”는 기사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어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을 비롯한 영남 내륙읍성의 치성에서 정방형, 장방형, 방대형의 치성이 혼용되는 이유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 연해읍성의 축조 시에는 너비에 비해서 길이는 5m라는 규칙이 비교적 일정하게 지켜지며 축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치성 길이 5m의 규칙은 성종조와 중종조에 축조되는 영진보성의 치성에서도 일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7세기에 축조되는 동래 후기 읍성의 치성에서도 길이가 5m로 확인되고 있어 남해안

연해읍성의 치성의 길이는 5m로 조선시대 전 기간 내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존에는 지형적인 조건에 기인하여 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가감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까지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의 경우에는 지형적인 조건이나 성 둘레에 따라 너비와 길이가 정해져 축조 되는 것과 더불어 행정단위의 위계가 높은 고을과 육군진과 수군진의 경우 각 鎭의 서열에 따라 상위지휘체계의 營鎭城일 수록 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더 크게 축조되었다고 하겠다. 즉 병영이 설치되고 병마절제사와 절도사가 위치하는 영진보성의 경우는 조선 전기 鎭管體制 의해 해당지역의 지방관을 겸임하는 행정치소인 읍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춘 영진보성의 경우에는 연해읍성의 치성의 규모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육군 및 수군진만 설치된 순수한 병영성인 영진보성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상도 연해 영진보성의 치성이 경상도 내륙은 물론 전라도, 충청도의 영진보성보다는 그 규모가 더 크게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은 치성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시기의 여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치성을 비롯한 방어시설의 숫자 및 규모에 있어서도 단일한 축성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남해안 연해지역이 對倭寇 최일선 전략적 거점으로서 그 군사적인 기능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엄격한 축성 관리를 받으며 일관되게 축성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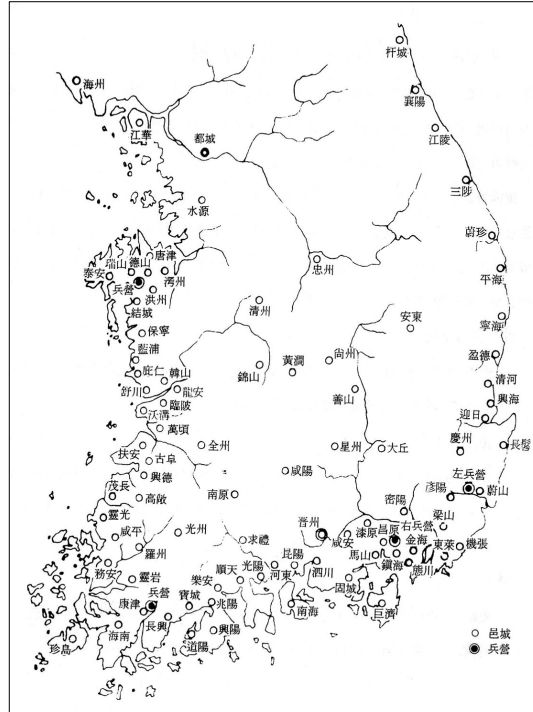


그림 15.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분포

참고문헌

논문

- 李元根, 1980, 『三國時代城郭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在赫, 1986, 『朝鮮時代 忠清海岸地域의 城郭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孫永植, 1987, 『韓國城郭의 研究』,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金泰中, 1992, 『慶州邑城』, 『慶州史學』 第11輯, 경주사학회.
- 申大鎭, 1995, 『朝鮮後期 實學者의 武器 및 軍事施設 改善論』, 『東國史學』 第29輯.
- 車勇杰·洪成均, 1996, 『百濟 城郭의 比較 研究 試論』, 『百濟論叢』 第5輯,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車勇杰, 1996, 『世宗朝 下三道 沿海邑城 築造에 대하여』, 『사학연구』 제

27집.

- 林承佑, 1999, 『朝鮮時代 安東邑城 研究』, 安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明徹, 2000, 『朝鮮時代 濟州道 關防施設의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韓三建, 2002, 『언양읍성 體城의 단면 형상에 관한 연구』, 『建築歷史研究』 第11卷.
- 李達鎬, 2003, 『‘華城’ 建設研究』,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단행본

- 沈奉謹, 1995,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학연문화사.
- 沈正輔, 1995, 『韓國 邑城의 研究』, 학연문화사.
- 최몽룡 역(Charles L. Redman 著), 1995, 『문명의 발생-근동 지방의 초기 농경민에서 도시 사회까지』, 대우학술총서.
- 李翼成 譯(李重煥 著), 1997, 『擇里志』, 乙酉文化社.
- 柳在春, 1999, 『近世 韓日城郭의 比較研究』, 국학자료원.
- 李宗峯, 2001,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도서출판 해안.
- 丁海廉 譯(丁若鏞 著), 2001, 『임진왜란과 병자호란-備禦考·民堡議』, 現代實學社.
-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 한스 페터 폰페쉬케, 2004, 『성곽』, 도서출판 정담.
- 朴廣春, 2006,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보고서

-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5,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 沈奉謹, 1986, 『蔚山倭城·兵營城址』, 東亞大學校博物館.
- 慶州文化財研究所, 1991, 『長鬐邑城』.
-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珍島郡, 1992, 『珍島邑城·鐵馬山城地 表調査報告書』.
- 沈奉謹, 1994, 『巨濟烏壤城址』, 東亞大學校博物館.
- 國立扶餘博物館·大田地方國土管理廳, 1997, 『서천 장암진성』.
- 昌寧郡·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靈山邑城址 地表調査報告書』.

- 羅東旭, 1999, 『金海 東上洞 소방도로 개설 구간내 金海邑城址 試掘調査』, 釜山廣域市立博物館.
- 沈奉謹·李東注, 1999, 『舊所乙非浦城址地表調査報告書』,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 沈正輔·李達勳·姜鍾元, 1999, 『沔川邑城』, 大田産業大學校·唐津郡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1, 『熊川邑城』.
- 羅東旭, 2001, 『金丹串堡城址』, 釜山廣域市立博物館.
- 羅東旭, 2001, 『慶尙左水營城址』, 釜山廣域市立博物館.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順天大學校博物館·靈光郡, 2001, 『靈光 法聖鎮城-精密地表調査報告書』.
- 밀양대학교박물관, 2002, 『밀양읍성』.
- 東亞大學校博物館, 2003, 『彦陽邑城 綜合整備復元을 위한 學術調査報告書』.
- 李南奭·徐程錫, 2003, 『藍浦邑城』, 公州大學校博物館·保寧市.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4, 『河東邑城』I.
- 俞炳一·裴恩景, 2004, 『蔚山 開雲浦城址』.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巨濟 玉浦城址』.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5, 『東萊邑城址 整備事業 敷地內 發掘調査 結果略報告書』.
- 羅東旭, 2005, 『慶南地域 邑城과 鎮城의 試·發掘調査 成果』, 『東亞文化』創刊號, (財)東亞文化研究院.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6, 『河東邑城』II.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6, 『馬山 合浦城址』.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6, 『古縣邑城』.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釜山地下鐵 3號線(壽安停車場) 建設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2次 現場說明會 資料』.

Abstract

A Study on th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of the Coastal Town Castle in the South Coast

Lee, Il Gab

Th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Chisung, 雉城) at a town castle located at a small town along the coast waters of the south sea were representative fortifications, which were built as a set of structures and a town castle's subsidiary facilities along with impregnable protective castle walls, castle gate grounds, moats, and lower defensive and offensive walls built on top of a castle(Yeojang, 女墙)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so those data i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s of fortifications at the coastal towns of the south sea at that time.

In case of Gyeongsang-do, there existed town castles built in a location where provincial higher administrative units along with Daedohobu(a kind of local administration, 大都護府) and barracks at Gyeongju, Gimhae, and Changwon, and the town castles showed a difference in size from other town castles belonging to the lower administrative units by one point five to two times. These aspects show that the higher level the administrative units, the mor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and besides, at the town castles having barracks and naval barracks, the much larger numbers of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in the town castles were planned and built in comparison with other town castles built at general counties or prefectures.

The basic numerical value of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in town castles was divided into 6-site-location and 12-site-location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other words, the two types of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were as follows; the 6-site-location consisted of four

fully-grown bulls and two right-left symmetrical castle forms at the main gate site ; the 12-site-location consisted of four fully grown bulls with two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respectively at the left and right of main gate site.

Therefore, the fact that more than 12 locations of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were built proves that the Joseon people fortified their defensive facilities to protect town castles from the Japanese pirates at that time who frequently committed provocative acts especially at the coastal town castles along the south sea; thus it is presumed that the Joseon people's fortifications project once centered on Hasam-do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urned its most emphasis on the coastal areas of Gyeongsang-do, i.e. coastal town castles along the south sea.

Among the coastal town castles, inland town castles and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of Youngjin Castle(營鎭堡城) was the square type ground plan used for building for the longest time and the next was a rectangular-base with narrow flat upper section, and the last was a rectangular form. It is found that in the former times on King Sejong's 15th year ruling period(1433), there had been a lot more frequencies of a rectangular square with almost the same ratio of length over width, which was used either by Naesangseong where barracks and town administration commonly co-existed or by town castles built in the higher level unit towns among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Next, from after the 15th century through the 16th century, the ground plan for th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was mainly a regular square and a rectangular; in contrast, rectangular base with narrow flat upper section diminished or extinguished. Likewise, in case of naval forces Youngjin Castle built before and after the 15th century, the regular square had been a main-stream, and such convention was passed through the early-middle Joseon Dynasty periods to the later period of Lee's Dynasty.

In addition, in King Sejong's 15th ruling period(1433), rules and forms for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in town castles were applied, and accordingly, rectangular base with narrow flat upper section form

castles were built; however a square form and a rectangular form were also continuously used in building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Besides, in case of rectangular formed castles, it is found that it had been longer used than the rectangular base with narrow flat upper section form castles and also the standard for building rectangular base with narrow flat upper section form castles wasn't observed well at that time.

Up to this time, it has been presumed that the fact that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had various ground plans with different length and width in the same town castle was due to the difference in measurements and the length of periods for castle construction. However,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were built with difference in length between castles to serve mutually supplementary functions and that's why a square, a rectangular, and a rectangular-base-with-narrow-flat-upper-section form were used together in building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of inland town castles in Youngnam District including coastal town castles along the south sea.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 construction was done with width and length decided by its surrounding geological condition or castle circumference and in case of Youngjin Castle-the higher administrative and military command system, it had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built with a greater length and width.

Next, the five-meter length standard[which was the established rules and forms at that time] of th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were usually observed and they were built near the coastal town castles along the south sea.

In addition, such rules and forms of five-meter are found in th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of Youngjin Castle built during King Sungjong and Jungjong periods and the same with the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of later built Dongrae town castle;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rules and forms of five-meter-long measurement had been observed continuously through the whole periods of Jeosun Dynasty.

Therefore, coastal town castle built along the south sea areas, as indicated in case of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used a single

construction pattern in their numbers and size of defensive facilities including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districts' during the same periods, which fact proves that the coastal areas along the south sea, due to military function as a strategic stronghold against Japanese pirates invasion, were under strict castle-construction control from the government, thus consistently carrying out with castle-construction project.

Key words: Coastal Town Castle(沿海邑城), Youngjin Castle(營鎮堡城), Supplementary Defensive Castles(雉城), Japanese pirates, a square form, a rectangular form, narrow flat upper section form